



[산업] 지원금 줄고 개통행사 없어도 '갤S20' 흥행가도 06



Economy

코스피	2162.84 (0.00)	코스닥	667.99 (0.00)
금리 (미국 3년)	1.18 (-0.05)	환율 (원/달러)	1209.20 (+10.50X21일)

<장기>

# “공장 섯다운 막아라” 구미·울산 비상사태

# 文 대통령, 위기경보 ‘심각’ 격상

산업계 ‘코로나19’ 방어 전사 대응 삼성구미사업장 직원 확진 판정에 LG·SK 등 구미산단 기업들 비상 현대차 등 거점 울산도 확산 우려

노텍, SK그룹에서는 SK실트론, 인근 경북 영주시에 SK머티리얼즈가 있다. 한화시스템과 효성티앤씨와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도 구미산단 소속이다.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도 비상사태다. 확진자가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예배를 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변질 수 있다는 공포가 휘몰아쳤다. 울산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을 비롯해 에스오일과 SK에너지, LS니코동 제련 등 대규모 산업 시설이 있다.

앞서 여러 사업장은 최근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량 확산한 직후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한숨을 내쉬고 있다. SK하이닉스 이전 사업장이 19일 800여 명을 자가격리했고, 한국지엠 부평 공장도 20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직원을 조기 퇴근 시켰다. 두산중공업도 같은 날 창원공장 사내부속병원을 의심자 발생으로 폐쇄했다.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섯다운’에 나서야했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코로나19 방어를 위한 전사적 대응을 시작했다.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와 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소독제와 마스크 보급도 늘렸다.

특히 실제 피해를 입게된 삼성전자는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초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른다는 원칙으로 대응했지만, 지난 주말부터는 구미-수원 사업장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회의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코로나19 관련기사> 2~5, 8, L1, L3~L8면

문대통령, 국가적 위기로 인식 총리 주재 재난본부 총력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여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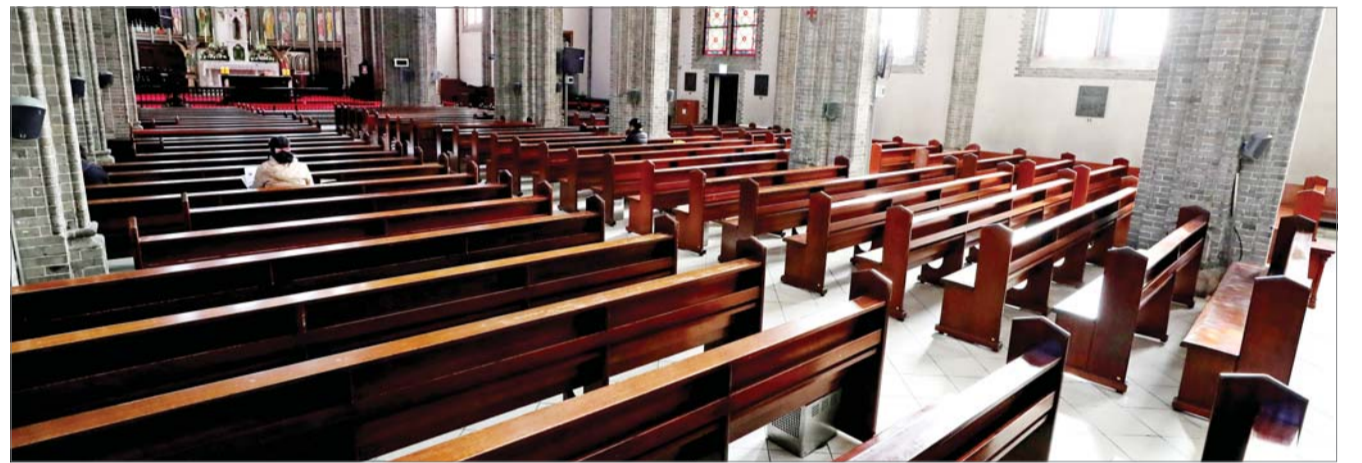
그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

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한산한 명동성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본당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결국 국내 공장으로도 침입했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섯다운’ 확대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4일 오전까지 구미사업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무선사업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따라 사측은 이날 전 직원을 귀가 조치하고 모든 시설을 방역했다. 확진자가 근무한 층은 25일까지 문을 닫기로 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갤럭시Z 플립 등 프리미엄 모델을 생산하는 곳이다. 주말에 발생한 만큼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없을 것이라 밝혔지만, 밀접접촉자 격리와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일부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 밖에도 구미산단은 국내 주요 산업 거점이 위치한 곳이다. LG그룹에서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및 LG이



2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서초구 삼성 디지털프라자 서초점, 삼성전자서비스 서초센터에 임시 휴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감염병에 드러난 韓증시체질... 中보다 큰 폭 하락

한국 증시가 좀체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도 순매도세로 돌아섰고, 지수 하락폭은 주요 3개국(한·중·일) 중 가장 크다. 금, 달러, 채권 등 안전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3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1월 20일~2월 21일) 코스피 지수는 4.4% 내렸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지난주 초 반등 국면에 들어서는데도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수는 22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보다 더 하락 해당기간 코스피 지수는 일본, 중국 등 주요 감염국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25는 2.9% 하락했

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8% 내렸다. 상하이 지수는 3000선을 돌파하며 약진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부터 지수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투자 대기자금 성격인 머니마켓펀드(MMF)로 한 달 만에 25조20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4면에 계속>

/손영기 기자 sonumji301@

# Solution

; 1. (문제, 곤경의) 해법, 해결책 2. (퀴즈, 수학 문제의) 해답, 정답 [se'lu:ʃn]

77억명 모두가 고갈 걱정없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떤 것일까? 화학은 더 친환경적이 될 수 없을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첨단소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질문들에 한화솔루션은 기술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화케미칼, 한화규셀, 한화첨단소재의 기술력을 모아 가장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며 내일의 가능성을 이어가는 첨단 솔루션으로.

우리는  
오늘의 질문에  
내일의 기술로 해법을 찾아내는  
한화솔루션입니다.

# 재난영화 현실로... 통제 벗어난 '코로나19' 공포·충격

이틀간 신규 확진자 398명 폭증  
총 602명 중 신천지 관련 329명  
사망자 4명 늘어 누적사망자 5명  
감염병 경보, 경계→'심각' 격상

한 편의 재난 영화 같은 상황이 현실 속에 펼쳐지고 있다. 지난 이틀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달했고, 누적 사망자도 5명이나 발생하면서 감염증은 사실상 통제를 벗어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확진자 수는 수일내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첫 확진자가 나오지 한달, 잠잠해지는 듯 했던 코로나19가 최근 며칠 새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산하며 충격과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다.

## ◆이틀만에 398명 감염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에는 총 16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총 2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이어, 또 하루만에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난 이틀간 발생한 환자는 모두 명, 이제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602명이다. 그 사이 사망자도 4명 늘면서 누적 사망자는 5명이 됐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된 환자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123명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75명으로 집계됐다. 75명 가운데 63명은 대구에서 발생했다. 이제까지

##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코로나19 격상 시기
<b>관심</b>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1월 20일 국내 최초 발생
<b>주의</b>	국내 유입	제한적 전파	1월 27일 확진자 4명
<b>경계</b>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지역사회 전파	2월 23일 확진자 556명*
<b>심각</b>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전국적 확산	

자료/질병관리본부 \*23일 오전 9시 기준 연합뉴스

지 발생한 총 602명 확진자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는 32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4%를 차지한다. 대구·경북 환자는 총 494명으로 늘며 전체 82%를 차지했다.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하며,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숨진 38번째 환자는 56세 여성으로 치료 중 호흡곤란 증세 등 중증 상태를 보여왔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청도 대남병원 입원 환자다. 나머지 1명(3번째 사망자)은 경북 경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1세 남성으로 첫 번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사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날 서울 1명, 부산 8명, 광주 2명, 경기 4명, 경북 25명, 경남 10명, 제주 1명의 추

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부산 2명, 광주 2명, 경기 3명, 경북 9명, 경남 3명은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 연관자다.

확진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도 2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중 603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현재 확진자 중 에크모나 기계(인공)호흡을 하는 중증 환자는 2명이며, 산소마스크 치료를 받는 환자는 4명으로 알려졌다.

## ◆추가 확산 막을 수 있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역당국의 대응체계를 믿을 수 없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급격히 번지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제일 큰 문제다. 정부는 현재 9334명의



23일 오전 광주 동구 동명교회 분당 앞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외부인 예배 참석을 통제하기 위해 신도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며 몇명이 남아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방역 당국은, 이제까지 파악된 신천지 교인 9334명 가운데 유증상자는 1248명이며, 이제까지 293명의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특히, 전일까지 야근을 하고 경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번째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포를 키웠다.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라 이 환자의 시신은 부검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화장됐다.

정 본부장은 "40대 경주 사망자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한 사망원인이 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며 "부검을 실시하지는 못했고, 환자의 기존의 과거 병력이나 최근 의무기록, 검사결과들

을 확인해 중앙임상 TF 등 전문가들과 사망원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경보단계가 최고치로 올라간 것은 지난 2009년 환자 75만명이 발생했던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처음이다.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바뀌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아닌 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만들어져 조금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심각 단계가 되면 중수본과 질병관리본부의 방역대책본부, 그리고 각 시도별로도 재난안전본부 등의 조직들이 격상되면서 강화되고, 시행하는 조치들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확진자 태운 구급차 행렬

23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으로 이송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구급차들이 줄지어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격리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드러나자 내일까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248병상)과 대구의료원(239병상) 2곳에서 487개 병상을 확보해 활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방역망 '유명무실'... 생존은 '각개전투'

대구·경북 지역만 마스크 집중공급  
이외지역 마스크 비싸도 모두 동나  
SNS선 일회용 세척방법 등 공유  
직장인, 출근 등 일상생활도 공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주말 사이, 하루 수백명의 확진자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정부가 구축해놓은 방역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탓이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의료기관 대응 체계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제 스스로 살아남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 노력에 나섰다.

## ◆'생존게임' 이 시작됐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5명으로 늘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 안에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설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점차 고갈돼가는 마스크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먼저 공급하며, 이외 지역에서는 구할 수 있는 마스크 물량이 전혀 없다. 감염증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2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지원에 나설 공무원과 의료진, 군인 등에게 나눠주기 위해 긴급지원용 방호복과 고글 등이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가격에 판매되던 마스크도 모두 동이난 상태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전 모씨는 "정부가 남아있던 마스크 물량을 모두 가져가는 바람에 약사 자신이 쓸 마스크도 전혀 구할 수가 없다"며 "마스크를 찾아 돌아다니며 패닉이 된 고객들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도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의 생존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SNS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제용 필터를 구입해 등산 마스크 안에 넣어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를 세척해 방한 마스크와 이중으로 착용하려는 대안을 공유하고 있다.

## ◆직장인 "출근해도 되나요"

약동같은 주말을 보내고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걱정도 크다. 생업을

중단할 수 없어 마스크와 장갑, 손세정제까지 챙겨왔지만 집 밖으로 나서기가 두렵다.

직장인 고 모씨는 "대중교통과 택시 중 뭐가 더 안전한지, 비싼 주차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당분간 자차운전을 해서 나가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선다"며 "수백명이 오가는 사무실은 종일 마스크를 써도 불안하고, 함께하는 식사자리, 회의도 모두 신경쓰인다"고 토로했다.

업무상 가야 하는 회사자리와 출장은 또 다른 걱정이다.

통신사 마케팅팀에 근무하는 정 모 팀장은 "직장 상사가 함께하는 자리에 바이러스가 두렵다고 부하직원이 참석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나"며 "매번 핑계를 대기도 어렵고, 상대측이나 뒷선에서 알아서 취조해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업계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

>> 1면 '공장 섰다온 막아라...'서 계속

대구-구미 지역 출장도 막아놓은 상태다.

LG그룹은 감염 의심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발열자는 물론, 대구와 청도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를 사업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

사업장간 출장을 금지해 만약의 사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에서도 현대차가 '1일1방역'을 비롯한 전방위적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는 가운데, 수시 체온 측정은 물론이고 회의를 화상

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SK도 SK하이닉스가 일찌감치 의사자 발생에 따라 공용공간 폐쇄 등 예방 조치를 대대적으로 확대했고, SK실트론 등 사업장에서도 대응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장 생산 중단뿐 아니라 유급 휴가에 따른 임금, 이미지 타격까지 천문학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도와주세요” 음식·숙박업, 금융지원 문의·지원 쇄도

도소매업 이어 각종 행사 취소에 관련 중소·중견업체 피해 도미노 대출상환 유예, 보증지원 등 요청 금융당국·은행·카드사 지원 총력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이 매출감압 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도소매업을 비롯해 어린이 집 휴원이나 졸업·입학식,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관련업체의 피해가 커지는 연쇄효과도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담 지원은 지난 7일 시행 이후 18일까지 8영업일간 5683건, 약 3228억원 규모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지원 규모 역시 초반 나흘간 800억원에서 빠르게 늘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315억원(4952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됐다.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 금융사를 통한 지원은 913억원(731건)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여행을 취소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의 지원요청이 많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수출입업체 등 원산지 중국 관련 피해가 컸다면 이제는 얼어붙은 내수시장에서 피해가 본격화됐다.

금액으로는 숙박업의 금융지원이

구분	정책금융		시중은행		카드사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식점업	897	213.6	30	247.2	277	20.6	1204	481.3
숙박업	38	240.8	26	281.6	2	0.4	66	522.7
소매업	945	280.9	17	16.9	98	9.4	1060	307.1
도매업	517	288.5	26	75.7	0	0.0	543	364.2
여행레저업	134	58.5	5	5.7	25	2.6	164	66.8
운수·창고업	314	121.9	0	0.0	6	3.2	320	125.1
자동차 제조업	26	52.1	0	0.0	0	0.0	26	52.1
기계·금속제조업	190	178.2	3	2.3	11	1.0	204	181.5
섬유·화학제조업	137	121.6	7	40.4	0	0.0	144	162.0
기타	1700	754.4	65	194.9	133	11.4	1898	960.7
총계	4898	2310.5	179	864.6	552	48.5	5629	3223.5

/자료=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522억7000억원 규모로 가장 컸다. 특히 정책금융의 경우 숙박업체당 약 6억원이 지원돼 평균치 47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원건수로는 음식점이 12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골목상권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규모는 481억3000만원 규모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음식점업이 지원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에 금리·연체료 할인과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각각 364억2000만원, 307억1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마스크포장업체인 A사는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생산업체에서 현금결제를

요청하면서 운전자금 대출을 문의했다. 서울지역 공연기획업체 B사는 2월에 진행하기로 했던 공연이 코로나19 확산에 취소되면서 특례보증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 소재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했던 C사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매출액이 줄면서 분할상환 금액을 유예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지원상담 요청이 쇄도하는 만큼 금융지원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19 금융부담 이행 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총 1만70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대부분이 매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자금지원 문의였다”며 “특히 호텔·숙박·여행·레저 등 관광업종에

서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많았고, 중국에서의 원재료 및 부품 조달 애로, 현지 자회사의 조업 차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요청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약 2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보증과 대출, 수입신용장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들 역시 신규자금 공급, 금리 및 연체료 할인 등 자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면책되도록 조치했다. 지원기업의 부실이 향후 책임소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실무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 코로나19 추경 한목소리 메르스보다 많은 15조원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11조원 규모 이인영-황교안 추경 필요성 공감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와 국회가 추경 편성으로 대응한 전례를 고려해 여야 정치권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경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다. 이는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 규모가 11조 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가 메르스 사태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추경 규모가 커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예비비 3조 4000억 원을 집행하고 1040억 원의 목적 예비비까지 투입했지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에 대한 폭넓고 충분한

편성 ▲집중된 관광·숙박·음식점 등 자영업 피해 구제 ▲대구·경북 지역 특별 재정지원 등 추경 편성 원칙과 야당도 추경 편성에 동의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대구·경북에는 병원과 의료진, 음압 시설 등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대대적인 인적·물적 지원에 신속히 나서고,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것으로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요구한 점에 대해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범정부대책회의를 갖고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 권고에 따라 (방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 규정이 엄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에 대한 일관성은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1차에는 깜빡했니? 2차에도 놓칠거니?**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0년 2월 3일(월) ~ 3월 10일(화)**  
★ 신입생은 반드시 신청! ★ 1차신청 놓친 재학생도 신청가능!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월) 9시 ~ 3.10.(화)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3.(월) 9시 ~ 3.12.(목) 18시**

**신청대상**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신청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 가능(재학 중 2회에 한함)

**신청문의 1599-20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앱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Android

iOS

**서류제출방법**  
○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 “안 나가고 안 만난다” 온라인 비대면택배 거래 급증

**쿠팡 주문량 폭증, 배송인력 확대**  
**SSG닷컴 식품매출 전년비 98% ↑**  
**CU 배달서비스 한 달간 68% 경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집밖을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에 마트 대신 온라인으로 장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다보니 비대면 택배 배송이 보편화되고 있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당분간 모든 주문 물량에 대해 ‘비대면 언택트 배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객과 직접 만나 물건을 전하는 대신, 문 앞에 두거나 택배함에 맡기는 방식이다.

쿠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 때까지 실시되는 한시적인 안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송인력의 안전을 위해 전국 모든 물류센터와 캠프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전국 모든 물류센터에 열감지 카메라도 설치했다.



홈플러스는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한 예방적 살균서비스를 진행했다. /홈플러스

쿠팡은 주문량이 급증한 품목의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배송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규 환자가 몰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고객들이 원활하게 생필품을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섰다. 19일 이후 이 지역 주문량이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어, 조기 품질과 극심한 배송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쿠팡 측은 “현재 전례 없는 정도로 주문이 몰리고 있어 배송 인력을 긴급히

늘리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문 처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마트 SSG닷컴도 최근 한 달간 새벽배송을 포함한 ‘쓱배송’ 주문이 작년보다 20% 늘었다. 지난 19일에는 주문량이 폭증해 미리 주문할 수 있는 최대일자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쓱 배송이 모두 마감됐다. 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생수(96%), 채소류(75%), 홍삼·비타민 등 건강식품(70%)이 높은 성장세를



고객이 CU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BGF리테일

보였다.

G마켓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김치, 반찬, 생수, 생선 등 장보기 관련 품목의 판매량이 20~150% 늘었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20일에는 라면과 통조림, 즉석밥의 매출이 각각 80%, 72%, 65% 급증했다.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수요도 증가했다.

최근 한 달 CU의 도시락 매출은 메르스 때와 비교해 32.2% 더 높았으며 김밥 65.9%, 즉석식 93.9%, 시리얼 61.6%, 육가공류 29.2% 매출이 올랐

다. 또한, 외식이 줄어들면서 반찬류 29.0% 농산식재료 27.4% 과일 27.2% 판매가 늘었다.

또한, CU가 요기요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배달서비스의 이용 건수도 최근 한 달 동안 평소 대비 68.5% 경증 뛰었다.

온라인몰과 편의점 매출은 상승하는 반면, 소비자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백화점과 마트업계는 울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는 휴업에 돌입, 많게는 수백억의 매출 손실을 빚었다.

중국인 관광객과 파이공(보따리상)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했던 면세점 업계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재 유통업체가 영업 중단으로 입은 손해 액수는 수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사상 최악의 1분기 실적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착한 건물주·사장님’... 임대료 내리고 마스크 노마진 판매

전주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전국 확산  
 에버그린 등 ‘노마진 마스크 판매방송’

상가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나 소독제를 마진 없이 판매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등 ‘착한 000’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며 공생하려는 움직임이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아직은 미미한 이같은 ‘착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이나 사무실 등의 임대료를 과감히 낮추는 것이 한 예다.

2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상가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서울 남대문시장, 경기 김포 등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자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10% 이상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전주 시내에 있는 또다른 건물주 64명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10~20%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 지역 경제 침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 오전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임대료 인화가 몇 분으로부터 시작해 나비효과로 남대문시장 등으로 확산하듯 국민·정부·지자체가 한 몸이 돼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대화 자리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착한 임대인운동’을 시작한 건물주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전주의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서울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졌다. 남대문시장 건물주들이 상가 2000여곳의 임대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20%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하면 입점 상인들은 매달 2억원, 3개월간 총 6억원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대문시장에는 약 1만2000개 점포가 있다. 전체의 6분의1이 착한 행보에 동참한 것이다.

김포의 장기동에서도 한 건물주가 4곳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100만원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익명을 요청한 건물주가 입주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했다. 그 마음이 감사하고 따뜻하다”며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착한 사장님’들도 조명받고 있다.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이 공급이 달려 제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많은 이익을 포기하고 ‘노마진’에 공급하고 있는 몇몇 중소기업 대표가 그들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지난 18일 경기 안양에 있는 마스크 제조기업인 에버그린으로 달려가 격려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승환 대표가 96년 설립한 에버그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제조에 성공하는 등 마스크 제조와 관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에버그린은 최근 중기중앙회를 통해 마스크 1만개를 공급,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에 있는 우리 기업 20여 곳에 전달했다. 특히 에버그린이 이번에 공급한 마스크는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수

준으로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회장은 “마스크 물량이 부족함에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공급해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에버그린을 포함해 역시 마스크를 제조하는 씨앤투스성진, 마스크상사, 파인텍, 위텍코퍼레이션, 스리에스엠코리아, 레스텍, 케이엠은 공영쇼핑의 ‘마스크 노마진 게릴라 판매방송’에 관련 제품을 공급,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일반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튿날인 19일엔 손소독제 제조회사인 우신화장품도 방문했다. 우신화장품의 손소독제 역시 공영쇼핑을 통해 노마진으로 판매됐다.

박 장관은 “마스크 등의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수급 안정에 힘써주는 기업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금 값, 사상 최고 1g 당 6만2860원

>> 1년 ‘감염병에 드러난...’서 계속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KRX 금시장은 지난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1일 기준 금 값은 1g당 6만2860원으로 연초와 비교해서 10.5% 상승했다.

채권가격도 크게 올랐다. 3년물 채권 금리는 1.182%로 이미 기준금리(1.25%) 이하로 내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했다. 이달 들어서만 6.9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섰다.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 탓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 ◆ “즉각적 조치 필요”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 ‘약한 경제 체력’을 문제 삼는다. 중국은 확대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은 우려감만 큰 상황이다.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는 1.6%(S&P)까지도 낮아진 상황이다.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요인)’로 꼽혀왔던 배당 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 지배구조 개선이 상당부분 개선됐음에도 위기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상장사 배당성향은 20%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가고 있지만 한국 증시 할인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위기에 한국 증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

# 금융권도 코로나 격랑속으로... 지점폐쇄 속 스미싱까지

코로나 19 악용한 금융사기 급증  
감염우려있는 직원 자가격리 조치  
금융전산 위기경보 관심으로 격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은행권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일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점이 임시 폐쇄되는가 하면 코로나19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금융당국은 금융전산 위기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격상하고, 각종 스미싱을 비롯한 루머·풍문 유포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 ◆은행권, TK지역 일부 지점 폐쇄

은행권은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을 폐쇄하거나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비상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21일 대구지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지점을 임시 폐쇄했다. 현재 수협은행은 대구지역에 회원조합 포함 7곳이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질병 관리본부 주관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감염우려가 있는 직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며 "지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 1km 인근의 반월당 금융센터, 경북지역금융본



농협중앙회 허석 부회장(가운데)이 지난 21일 오후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협

부, 서대구 지점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도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입점한 동산의료원출장소를 임시 폐쇄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23일 "동산의료원이 국가 지정 코로나 확진 환자 전용 거점병원으로 지정됐다"며 "기존에 입원했던 환자가 모두 퇴원하면서 해당병원에 입점한 동산의료원 출장소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은행은 전국 240개 지점 중 221개 지점이 대구·경북 지역에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에 따라 방역 소독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며 "특히 출입문 손잡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손이 자주 닿는 곳으로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대구 침산동 지

점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지점을 임시 폐쇄했다. 국민은행은 대구 침산동 지점에 대해 주말 동안 추가 방역을 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체 직원을 통해 개인 은행업무만 수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대구지역 영업점 4곳을 임시 폐쇄했다. 24일부터 정상영업한다. 달성군지부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이 있어 해당 지점을 폐쇄, 감염 우려가 있는 직원 63명을 자가 격리하고 대체 영업점을 운영해온 것. 검사 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폐쇄했던 대구지역 영업점 4곳은 24일부터 정상 영업한다.

이 밖에도 TK지역에 지점을 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p>[정상문자사례]</p> <p>[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착용 등 수칙 준수와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상담바랍니다.</p> <p>[서울시재난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단계 단계로 격상(1.27). 중국방문 후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시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의심문자사례]</p> <p>[Web발신] 국내 우한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a href="http://news.naver.com">news.naver.com</a> .kr</p> <p>[Web발신] 코로나 전염병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a href="http://pdx">http://pdx</a> 접촉 휴게소 확인</p>
---	--

코로나19 정상문자와 의심문자 비교 /전북은행

해 비상계획 매뉴얼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지방 지역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점 업무를 보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아 불편과 피해가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TK지역에 지점을 둔 은행은 신한 49개(전국 전체 873개)·KB국민 75개(1016개)·하나 39개(705개)·우리 40개(870개)·부산 1개(256개)·경남 4개(190개)·대구 221개(245개) 등이다.

해당은행 관계자는 "대구지역 영업점을 대상으로 소독횟수를 늘리고, 영업점 입구에 열 감지기와 체온계를 설치해 출입인의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확진자로 판명된 경우 빠르게 자가격리하고 인수인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민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안감 악용한 스미싱 급증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휴게소 확인', '마스크 무료 배포'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는 것.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를 터치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해킹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누적건수는 9688건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화로 질병관리 본부를 사칭해 방역을 위해 앱 설치를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와 유사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앱을 설치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전산 위기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격상했다. 금융전산 위기경보는 사이버테러나 자연재해, 금융위기, 북한 도발 등 국내 금융전산망의 위협이 되는 상황에 발령한다.

경보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나뉜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금융전산망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기보, 기술평가 노하우 세계銀에 전파

美서 열린 '한국혁신주간' 참석  
개도국 혁신기업 지원강화방안 논의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기술보증기금이 세계은행에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수했다.

기보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혁신주간'에 참석해 세계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통화기금, 세계 무역기구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가의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 및 기술평가 노하우 그리고 기획재정부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사례 등을 전파해줄 것을 요청해 마련됐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조명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에선 기재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왼쪽 첫 번째), 빅토리아 과과 세계은행 부총재 등을 대상으로 기보의 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기보

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9개 정부기관과 49개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약 140명이 참여했다. 세계은행에선 사오린 양 사무총장을 비롯해 개도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정책수립을 총괄하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국내 금융기관으로 유일하게 초청받은 기보는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테마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

서 기술평가의 핵심엔지니어 기술금융에 최적화된 기술평가시스템인 KTRS와 이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전수받아 자체 평가시스템인 TTRS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태국 사례를 공유하며 기보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KB국민銀 특별관리지역 대구·경북에 긴급지원

KB국민은행은 23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

타뱅킹·자동차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구·경북지역 KB국민은행 거래 고객은 인터넷뱅킹 및 스타뱅킹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점내·외 자동차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도 동시에 받

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기기를 이용하거나 타행 거래 고객, 브랜드제휴 기기 이용 고객은 제외된다.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에서 1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한다. /양상미 기자

## 어려움 겪는 中企에 건물임대료 30% ↓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한다고 23일 밝혔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모두 55개사로서, 임대료 인하를 통해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차 관계를 넘어 모두 기업은행의 소중한 고객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3만여건 이용중지

### 금감원 "최고금리 초과 요구도 다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을 사칭해서 민대출로 위장하는 가하면 월 5% 등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요구하는 곳도 다수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이 1만2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103건 ▲유선전화 775건 등의 순이다. 광고매체는 전단지 1만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SNS 565건 등의 순이다.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광고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팩스나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사례 1625건 중 금융회사 사칭은 SC제일은행이 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311건)과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24%(월2%)를 초과한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이며,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불법채권추심과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상미 기자 smahn1@

# 이통사 지원금 줄고 개통행사 없어도 '갤S20' 흥행가도

예판기간도 2주일→1주일로 단축  
'코로나19' 사태에 온라인에 집중  
사전예약 첫 주 판매량 전작 상회

'100배줌' 갤럭시S20울트라 최고 인기  
블루·레드 등 컬러 마케팅도 한 몫



(왼쪽부터)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울트라. /손진영 기자 son@

이동통신 3사가 '코로나19' 여파에 삼성전자 플래그십폰 '갤럭시S20' 시리즈의 마케팅을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다. 과도한 마케팅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 기간도 2주일에서 1주일로 줄이고, 공시지원금을 전작 보다 줄였다. 이러한 신속속도에도 갤럭시S20 시리즈 사전예약이 순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몰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예약판매를 개시했다.

각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10만~17만원, KT는 8만9000~24만3000원, LG유플러스는 7만9000~20만2000원이다. 공시지원금은 오는 27일 개통일에 확정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일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 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금 변경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공시지원금보다는 모든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할인이 더 유리하다. 갤럭시S20의 공시지원금은 전작인

'갤럭시S10' 시리즈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낮아진 공시지원금에도 갤럭시S20의 사전예약 첫 주 판매량은 전작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00배줌까지 가능한 카메라와 전작보다 높아진 스펙이 입소문을 끌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 단말이 없다는 점도 갤럭시S20 시리즈의 호재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걱정했지만 사전예약 판매량인 전작인 갤럭시S10보다 소폭 많아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100배줌 카메라 영향으로 갤럭시S20 울트라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판매 분위기는 달라졌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구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화려했던 새 단말 출시 오프라인 행사는 사라지고, 오프라인 접점도 줄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오프라인 마케팅 대신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며, 갤럭시S20 예약판매에 나서고 있다.

KT는 온라인몰 KT샵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장소로 KT 컨설턴트가 찾아가



서울 시내의 '갤럭시' 플래그십 매장.

/김나인 기자

는 '여기오지' 서비스를 제공해 중고폰 보상부터 데이터 백업, 필름부착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T월드 다이렉트에서 '오늘도착'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갤럭시S20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상담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 개통부터 데이터 이전까지 마무리해 준다.

이동통신사가 시작한 컬러 마케팅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SK텔레콤은 아우라 블루, KT는 아우라 레드, LG유플러스는 갤럭시S20에서 클라우드 핑크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사전 예약가입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색상 '클라우드 핑크'가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 20일과 21일(18시 기준) 양일 간 예약가입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갤럭시S20의 4가지 색상 중 LG유플러스 전용색상인 '클

라우드 핑크'가 전체 예약가입자 중 3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코스믹 그레이(28.6%), 클라우드 블루(18.2%), 클라우드 화이트(17.2%) 순이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클라우드 핑크가 20~30대 여성 고객에게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 사용층이 여성임을 고려해 3종의 모델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갤럭시S20에 전용색상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결그룹 블랙핑크의 제니를 모델로 기용해 광고하고 있는 KT의 아우라 레드 색상도 인기다. 유튜브에 공개된 KT의 '갤럭시S20플러스' 아우라 레드 광고는 이날 기준, 280만뷰를 돌파했다. KT 관계자는 "광고모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레드 색상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lkni@metroseoul.co.kr

## LGU+ '갤S20' 핑크 3명 중 1명 선택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 갤럭시S20의 사전 예약가입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색상 '클라우드 핑크'가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20일과 21일 양일 간 예약가입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갤럭시S20의 4가지 색상 중 LG유플러스 전용색상인 '클라우드 핑크'가 전체 예약가입자 중 36.1%로 가장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코스믹 그레이(28.6%), 클라우드 블루(18.2%), 클라우드 화이트(17.2%) 순이었다.

갤럭시S20 플러스의 경우 '코스믹 그레이(35.9%)와 클라우드 블루(35.7%)를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했으며, 클라우드 화이트(28.4%)가 뒤를 이었다. 갤럭시S20울트라는 코스믹 블랙(60.4%)을 선택한 고객이 코스믹 그레이(39.6%) 대비 약 1.5배 이상 많았다. 모델별 예약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갤럭시S20 울트라가 40.7%, 갤럭시S20이 32.8%, 갤럭시S20 플러스는 26.5%로 갤럭시S20울트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나인 기자

## 삼성전자 첫 외부출신 이사회 의장, 박재완 누구인가 소통달인, 조정자 역할 최적 직원이 뽑은 역대 최고 장관

"이사회 독립성, 경영 투명성 제고"

삼성전자가 이사회에 박재완 사외이사를 새 의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 활동 경력이 가장 긴 인물로 오랜 기간 공백에 빠진 이사회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뉴삼성'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적지 않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박재완 사외이사를 새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추천키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상훈 전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14일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사회 의장 자리를 공백 상태로 남겨뒀었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한 것이 처음이며,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 책



박재완 삼성전자 이사회 신입 의장

임명령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신입 의장은 1955년생으로, 2016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199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와 국경전문대학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겸임 중이다.

행정가 경험도 풍부하다. 제17대 국회의원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실 정부수석 비서관으로도 활동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장관으로도 활약했다. 당시 부하직원들이 뽑

은 역대 최고의 기재부장관에 오르기도 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박 의장이 이사회 이사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과 함께,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학문적 식견과 균형감있는 시각으로 회사 경영 활동을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다고도 봤다.

세계에서도 삼성전자가 '뉴 삼성' 행보로 박 의장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회 중심 경영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외부인 사면에서도 이사회 내부 사정에 능통한 박 의장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앞으로 자산 처분 및 양도, 재산 차입과 지배인 선임 및 해임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주도하면서 경영을 이끌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 권한도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다.

/김재용 기자 juk@

## 美 이통사 5곳 중 4곳, 삼성 통신장비 쓴다

美 US셀룰러와 장비공급계약 체결

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G 입지를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5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US셀룰러와 5G·4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US셀룰러에 이동통신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전역의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US셀룰러는 이미 여러 상용망에서 성능이 증명된 삼성전자의 이동통신장비를 설치해, 보다 높은 통신품질과 안정적인 실내의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가입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 5

5G 통합형 기지국 등 3G PP 국제표준 기반의 다양한 5G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5G 통합형 기지국은 무선통신부분과 디지털통신부분을 통합한 제품으로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해 가로등, 건물 벽면 등에 손쉽게 설치 가능하고 광케이블 매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기지국용 5G 모뎀칩을 실장해 전력소모를 줄이면서도 최대 10Gbps의 통신 속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기 선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적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기 교육생을 선발해 24일부터 본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 개포디지털

혁신파크에 설치됐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2년 비학위 과정으로, 반기별 25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며 교육생은 수업·강의 등 기존의 교육 방식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함으로써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게 된다. 교육생 모집에는 총 1만118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207명이 1차로 선발됐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세상을 바꾸는 금융

### 1999년 국민은행 업계 최초 인터넷뱅킹서비스 실시



■ 국민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국내은행중 처음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8일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송금, 조회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국민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은행간 거래와 조회업무를 시작한 후 점차 무역결제, 전자상거래, 해외송금 등 국제거래업무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인터넷뱅킹 서비스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인 아닌 일반 시내요금에 적용된다.

### 2016년 업계 최초 올인원카드 KB국민 알파원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여러 장의 KB국민카드를 한 장의 카드에 담아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KB국민 알파원카드'를 2일 출시한다.

이 카드의 상품명인 '알파원'은 핀테크 기술이 집약된 최고와 최초의 카드라는 뜻의 알파와 모든 카드와 다양한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에 담은 올인원(All in One) 카드라는 뜻의 (One),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카드 상품마다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카드를 모두 소지해야 했으나 이 카드를 이용하면 단 한장의 카드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카드는 별도 발급비가 없어

이용 편의성은 물론이다. 이 카드 한 장으로 여러 장의 카드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원하는 혜택을 제공해 사용할 수 있다. KB국민 알파원카드를

카드인 'KB국민 알파원카드'를 이용하면, 설정된 카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핀테크 기술의 융합으로 앱카드와 실물카드를 실시간으로 맵핑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용할 카드를 수시로 변경해 원하는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다. 마트에서 마트 할인 카드를 '알파원 결제 카드'로 설정하면 마트 할인 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 주유소에서는 주유 할인 카드를 '알파원 결제 카드'로 설정하면 주유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국민 알파원카드'를

### 2003년 세계 최초 모바일뱅킹서비스 Bank ON 실시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조회와 이체, 출금, 수표조회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서비스가 본격 등장했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 칩을 이용한 첨단 모바일 금융서비스인 '뱅크 온(Bank On)'을 선보였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서비스되는 뱅크 온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담은 금융 전용 칩을 전용 휴대폰에 내장, 계좌조회와 이체, 현금출금, 수표조회 등의 기본서비스는 물론 교통카드 기능까지 제공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라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이번 뱅크 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력단계는 3~4회로, 소요시간은 1분내로 대폭 단축되며 통신료도 기존의 10~15% 수준인 건당 10~30원에 불과하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앞으로 한두달 내에 신용카드 지불 기능을 추가하고 로또복권 구매와 당첨확인 서비스, 광고금 납입, 주택 청약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영역을 대폭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9년 국내 최초 금융통신융합 이동통신 서비스 Liiv M 출시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 M은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전략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패밀리로 브랜드인 리브(Liiv)를 활용하고 직관적인 모바일(Mobile)을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허인 은행장)이 10일 중문점 예정인 가상이동통신망(MVNO) 서비스 브랜드명을 리브(Liiv)로 확정했다. 앞서 NO기반

### 2017년 업계 최초 보이는 ARS 서비스 실시



KB손해보험, 손보업계 최초 '보이는 ARS' 서비스 실시

■ KB손해보험은 16일부터 자동응답서비스(ARS)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손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보이는 AR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16일부터 자동응답 중 고객과 상담사 간의 실시간 자료 서비스(ARS)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확대하고자 손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보이는 AR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기존 ARS와 달리 상담사와 고객 간의 실시간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고객 문의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상담사의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기존 ARS와 달리 상담사와 고객 간의 실시간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고객 문의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상담사의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 금융 세상의 새로운 페이지 KB금융그룹이 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 노사·주주 힘 하나로 기사회생 날개 ‘활짝’

쌍용자동차가 고강도 자구안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지만 쌍용차 노사는 지난 2010년 이후 10년 연속 무분규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쌍용차의 모습을 보면 과거 2001년 SK하이닉스와 2016년 대한조선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평가다. 두 회사는 당시 청산위기까지 내몰렸지만 노사간 고통 분담을 통해 벼랑끝에서 기사회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395만대를 생산해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내수는 152만대로 전년 대비 1.0% 줄었으며, 수출은 240만대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세계 자동차시장 역성장과 코로나 19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생산량 조정과 인력 전환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쌍용차 역시 미래 생존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두 차례에 걸친 고강도 자구안을 펼치고 있다.

쌍용차의 경영 쇠퇴 노력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쌍용차는 국내 완성차업계 중 가장 먼저 2019년 임금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뿐만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자구 노력에도 직원과 노조가 모두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1차 자구방안의 경우, 노동조합이 고용 및 경영안정을 위한 회사의 비상 경영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1차 자구안에는 ▲근속 25년 이상 사무직 안식년제 시행 ▲명절 선물 지급 중단 ▲장기근속자 포상 중단 ▲의료비 및 학자금 지원 축소 등 22개 복지 항목에 대한 중단 또는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노사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렀다.

## 10년 연속 무분규 경쟁력 확보 집중 경영정상화 위해 직원·노조 합의 인건비절감 등 자구방안 94% 동의 마힌드라 대주주 “책임·역할 다할것”

지난해 12월 발표된 2차 자구방안에는 ▲상여금 200% 반납 ▲PI 성과급 및 생산 격려금 반납 ▲연차 지급률 변경 등 인건비 절감을 비롯한 고강도 경영 쇠퇴책이 담겼지만 임직원들은 94%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쌍용차 임직원들은 근본적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연간 1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포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쌍용차 직원들의 이같은 노력에 대

주주인 마힌드라도 손을 내밀었다. 지난 1월 16일 평택공장을 찾은 고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은 노동조합, 팀장, 공장, 대의원을 대상으로 열린 계층별 간담회에서 대주주로서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엔카 의장은 수차례 ‘완전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쌍용차가 조속히 흑자전환을 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내수·글로벌 시장에서 20만대까지 판매량 증대 ▲재료비 절감 ▲인건비·비용 절감 ▲제품 개발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 ▲마힌드라의 투자 의지 표명 등 쌍용차에 대한 지속 경영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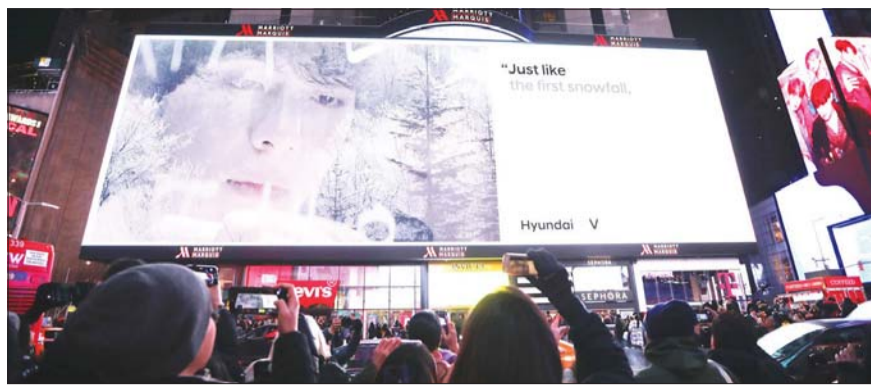
쌍용차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수출 회복을 위해 신형시장 진출과 함께 코란도와 렉스턴 스포츠 등 유럽 현지에서 인기 있는 모델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강화,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럽 시장 내에서 쌍용차는 영국 사륜구동 전동차 포바이포(4x4)의 ‘2020 올해의 픽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달 자동차전문지 ‘왓카’가 발표한 ‘2020 올해의 차’에서도 ‘최고의 픽업(2만8000파운드 이하)’에 선정되는 등 잇달아 제품력과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글로벌 수소 캠페인’ 영상 최초 공개 현장에 모인 사람들

## 현대차, 美서 BTS와 함께 수소 캠페인 공개

# “미래수소사회, 환경보호 앞장”

###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서 상영 ‘자연이 삶에 주는 감동’ 주제

현대자동차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글로벌 수소 캠페인’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21일 저녁 하루 유동인구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상업, 금융, 문화의 중심지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에 위치한 메리어트 마퀴즈 호텔 전 광판을 통해 상영됐다.

수많은 팬들과 관광객 그리고 고객들로 가득 찬 타임스퀘어에서 1시간 동안 상영된 영상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각자의 손글씨를 통해 ‘파

란 하늘’, ‘첫 눈’, ‘숲’ 등 ‘아름다운 대자연이 삶에 주는 감동’을 주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물 이외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차 ‘넥쏘’가 등장하는 영상을 통해 현대차가 그려나갈 미래 수소사회에 대한 비전과 노력을 전했다.

타임스퀘어를 방문한 시드니 카디엔 씨는 “현대차만의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 내 좋았다”며 “이번 수소 캠페인 영상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다운 자연과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부터 작은 노력을 실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26일부터 각 멤버별 한 편씩 현대차 SNS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KT, ‘올레tv’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

### 예방수칙 담은 광고·자막 송출

KT는 ‘올레tv’를 활용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담은 광고 및 자막을 송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KT는 현재 올레tv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30초 분량의 코로나19 국민 예방수칙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올레tv 시청자는 주문형비디오(VOD)를 시청하기 전 일반 광고 대신 코로나19 예방수칙 광고를 보게 된다. 광고 영상 외에도 셋톱박스 전원을 켜면 처음 화면에 나오는 올레 tv 가이드 채널 999번에서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을 자막으로 송출한다.

아울러 KT는 지난 12월 3차 전세기로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들이 머문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에 인터넷, 와이파이, 올레 tv 등 통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했다. 이를 위해 KT는 입국 전날인 11일 24명의 직원을 국방어학원에 긴급 투입해 303개 전 객실에 올레 tv를 설치하고 인터넷 39개, 와이파이 96개, 일반전화 7개 회선을 설치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프리즘라이브’ 韓·美 구글플레이 피쳐드 동시 선정

(스트리밍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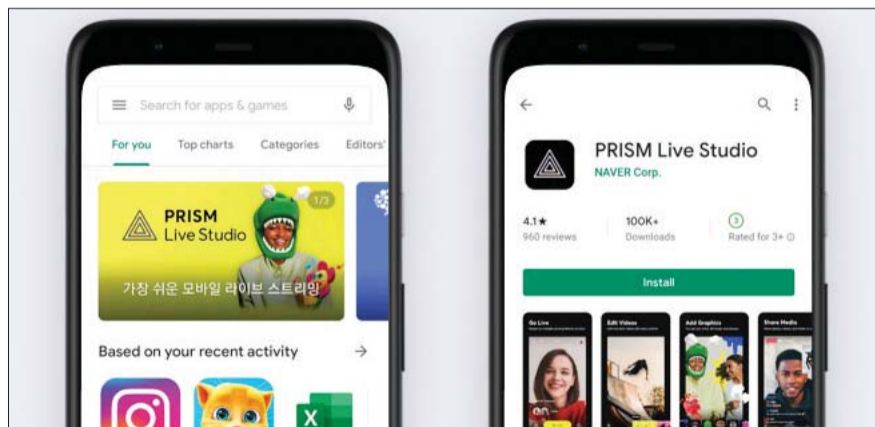
네이버 하나의 앱으로 촬영·편집 라이브 앱 다운로드 기준 1위 달성

네이버의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앱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21일 한국과 미국 구글플레이의 피쳐드에 동시 선정됐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라이브 방송과 동영상 편집 도구를 제공하는 전문 라이브 스트리밍 앱이다. 사용자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하나의 앱에서 라이브 방송 촬영부터 동영상 편집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간편하다.

피쳐드는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 중 이용자 평점(4.0 이상 유지), 사용성, 편리성 등 심사 기준을 기반으로 전문 엔지니어들의 서비스 검증을 통해 선정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메인 화면 상단에 추천 앱으로 소개된다.

지난해 3월 정식 출시된 프리즘 라이브



네이버의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앱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가 21일 한국과 미국 구글플레이의 피쳐드에 동시 선정됐다. /네이버

스튜디오는 구글플레이 모바일 라이브 앱 다운로드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는 매일 약 2500여 건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월 4만8000시간 분량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프리즘라이브스튜디오에는 고도화된 라이브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송출 기술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 적용해, 사용자가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는 자체 보유한 140여 개의 무료 음원을 포함해 540개 이상의 다채로운 이펙트와 텍스트효과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에어아시아, 3일간 한정 특가행사

# “호주, 역대 최저가로 다녀오세요”

시드니 9만 2500원부터 가능

에어아시아가 단 3일 한정 특가 행사를 나섰다.

에어아시아는 4시간 이상의 중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이달 24일 오전 1시부터 27일 오전 1시까지 72시간 한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예약 가능한 출발 날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직항 노선은 물론 간편환승이 가능한 시드니와 퍼스 등 호주 주요 노선을 역대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쿠알라룸푸르 2만8000원 ▲퍼스·골드코스트



에어아시아의 72시간 한정 타임 특가 이미지. /에어아시아

트 7만5000원 ▲시드니 9만2500원부터 구매 가능하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쿠알라룸푸르 2만3000원 ▲퍼스·골드코스트 7만원 ▲시드니 8만75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당분간 변동성장세... '실적개선 뚜렷' IT 성장주 관심을

**코로나 확산... 증시 투자전략**  
 증권가 증시 엇갈린 전망  
 "아직은 기우" VS "관망세"  
 IT, 우호적 펀더멘털 조성  
 반도체 주도주 흐름 여전



중국 베이징 내 미국 IT기업 애플 매장. /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발발 당시만 해도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면 파장이 끝날 것"이라던 증권가의 낙관론도 이제 자취를 감췄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가져온 파장이 단기간 변동성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도 감지된다. 소비·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내수경기가 부진할 것이라 우려 때문이다.

증권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정보기술(IT) 성장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IT 섹터 기업이 최근 잇따라 신고가 경신 행진을 펼치는 등 우호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1조4000억 판 기관... 엇갈린 전망**  
 코스피는 한 달새에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달 20일 2262.64에 마감했으나 21일 그보다 4.4% 떨어진

2162.84로 거래를 끝냈다. 전염병 공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21일 이후 증가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기관의 매도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기관은 지난주(17일~21일) 5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1조4057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평균적으로 매일 2800억원을 내다 판 셈이다. 같은 기간 4189억원을 순매도한 외국인보다 3배 이상 팔았다.

환율도 오름세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10.5원 오른 1209.2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해 9월 3일(1215.6원) 이후 가장 높다. 한국은행이 이달 내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달러가 강세를 띠고 원화 가치는 추락했다"며 "이러한 환율 상승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감염 확산 경로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중국 외

감염자 비중은 2% 이하"라며 "지나친 공포심리는 기우"라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부양책과 IT에 유리한 매크로 환경 등 아직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각국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보면 주식을 매수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긴 힘들다며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라는 견해도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증시의 상승세와 중국 정책 부양 기대에도 코스피는 지지부진"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반전 요소는 있다. 고강도 정책 대응 조기와, 유로존 실물경기 바닥 반등, 대선 가도를 앞둔 트럼프의 재정 부양 등"이라면서도 "강(強)달러 현상을 돌릴 수 있는 유의미한 상황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 중립 이하의 장세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경수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상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해답은 IT? 성장주 대응 필요**  
 코로나 공포에도 IT 업종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재난 수준의 코로나19 공포 속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IT 성장주에

대응하는 것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IT기업 애플이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겨 1분기 매출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IT 산업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라 전망이나왔음에도 IT 주도주 장세는 여전할 것이라 분석이다.

노동길 연구원은 "IT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형 IT 기업들은 과거보다 현금과 풍부한 배당금에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마주했다"며 "금리 하락 기대국면에서 IT 섹터가 여전히 유리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IT 내 반도체 업종의 주도주 흐름은 여전하다"면서 "확산세에 따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이라고 했다. 코로나 이슈가 완화되면 시장은 본래 펀더멘털로 회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경수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가 경기 흐름패턴 자체를 바꾸진 못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등 무형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며 IT의 주도주 변화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실적 전망치를 낮춘 것이 IT 업종 전체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라임펀드' 손실 벌써 1.2조... 추가 손실 불가피

무역금융펀드 실사 고려 땐  
 투자손실 규모 더 확대 될 듯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손실이 1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 자산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순자산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서다. 무역금융펀드 실사 결과까지 나오면 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62개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2조8142억원으로 설정액(4조345억원)보다 1조2203억원이나 적다.

투자원금인 설정액보다 운용 결과에 따른 현 가치인 순자산이 1조2000억원이 넘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D-1호', '테티스 2호' 2개 모(母)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 기준가격이 조정된 데 따른 영향 등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순자산과 설정액 격차는 지난 12일 2800억원 수준에서 지난 14일 9000억원을 뛰어넘었고, 17일부터 1조원 선을 넘었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또 다른 모펀드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 실사 결과까지 나오면 투자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실

사 결과는 내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4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자산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전액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약속어음(P-note) 원금(5억 달러)은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2개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이 펀드들에서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이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플루토펀드(719억원)와 무역금융펀드(30억원), P-note(470억원) 등에 1200억원 넘게 투자한 4번째 모펀드인 '크레디트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까지 고려할 경우 투자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들과 맺은 TRS 계약도 투자 손실 계산 시 고려 대

상이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의 TRS 계약(자펀드 포함)은 총 867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이들이 실제 자금을 먼저 회수해갈 경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기준가격이 조정되더라도 투자자 최종 손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금회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실현 가능한 환매·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에 파견된 검사반은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될 때까지 상주할 예정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대림산업 쿠웨이트 황 재처리 공장 약조전속 1개월 조기 준공

대림산업은 최근 쿠웨이트에서 황 재처리 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발주처인 쿠웨이트 국영 석유화학회사 압둘라 파하드 알 아즈미 부사장과 대림산업 김승규 실장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황 재처리 공장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정유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인 황을 제거하는 한편 재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된 고체 황을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공사준공으로 황 재처리 능력은 하루 2431톤에서 9600톤으로 증가했으며 시간당 1900톤의 고체 황을 출하할 수 있는 시설까지 완성됐다. 대림이 설계부터 기자재 구매, 시공, 시운전까지 책임지는 일괄 도급방식으로 수행했다. 총 사업비는 약 6180억원 규모다. 공장은 수도 쿠웨이트 시티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미나 알 아흐마디 석유화학단지 에 건설됐다.

원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원유 정제품의 품질을 급격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정유공장에는 황을 따로 걸러내는 공정이 필요하다. 또한, 황 성분은 대기로 방출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 사업은 대부분 해상과 가동중인 공장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작업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평가됐다. 특히, 공사 작업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하반기에는 쿠웨이트에 유래 없는 홍수가 발생해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림산업은 계약한 공기보다 1개월 앞당겨 공사를 완료했다.

/정영우 기자 yw964@

## 예탁원, 실기주과실대금 7.6억 서민금융에 출연

저리창업·운영자금 재원 활용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 6000만원을 출연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출연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출연으로 출연규모는 2019년 12월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해 총 175억6000만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보관하고 있는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중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순서대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은 주식투자자가 그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를 위하여 10년 이상 수령·관리하고 있는 자금이다.

예탁결제원은 1987년 실질주주제도

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출연금액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186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보관하고 있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지 기자

# 압구정 옛 현대아파트 매매가 3억 ↓... 전세는 2억 ↑

〈전용면적 108.9㎡〉

##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거래절벽

이달 셋째주 서울 아파트 0.03% ↑  
재건축은 3주연속 하락세 -0.04%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재건축 위주로 하락 중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대표적인 재건축아파트인 옛 현대아파트 가격은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이후 2개월 동안 약 2억~3억원 떨어지며 거래절벽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세가는 1억~2억원 오르는 등 상승세를 띄고 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3% 상승했다. 일반아파트는 0.04% 올라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반면 재건축은 3주 연속 떨어지며 -0.04%를 나타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각각 0.03%, 0.02%, 0.08%씩 떨어졌다. 지하철3호선 압구정역 인근 부동산



강남3구 아파트가 매매가격이 재건축 위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집주인이 급매로 내놓은 매물이 많다”며 “압구정 옛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2.23㎡가 22억원, 85㎡가 26억~27억원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12·16 규제 이후 호가가 2억원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용면적 108.9㎡는 최근 29억9000만원 매물이 나왔는데 2개월 동안 3억원이 떨어졌다”며 “지난 달 중순 전용면적 82㎡가 21억원에 거래된 이후 매매건수가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살펴

보면 압구정동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감소세를 띄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2건, 1월은 4건이 거래됐을 뿐이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다. 지금은 정부 규제로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띄고 있지만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흐름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게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강남은 대치동 은마, 한보미도맨션2차, 선경1·2차 등이 500만~2500만원, 개포동 주공6·7단지 2500만~5000만원 떨어졌다. 서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와 주공1단지가 2500만~5000만원 하락했으며 송파는 잠실엘스가 1500만~2500만원 떨어졌다. 재건축 아파트에 이어 일반아파트로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지정된 수원, 의왕, 안양 일대는 정부 규제로 인해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주로 청약과 관련

된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이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도 여전하다.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연수·서구) 등 서부권 중심으로 그동안 덜 오른 탓에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호재 등의 기대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세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직주근접,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은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압구정동 신현대, 대치동 한신휴플러스 등이 1000만~2500만원 올랐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품귀 현상을 보이며 전세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5㎡ 전세가격은 5억5000만~6억이었지만 2개월 동안 1억~2억원 올랐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조정지역 경기 5곳, 거래 ‘뚝’ 관망세

## 거세지는 금리인하 요구... 이주열 선택은?

〈한국은행 총재〉

### 2·20부동산 대책 이후 첫 주말

코로나19 영향에 분위기 ‘냉랭’  
대출규제·양도세 증가 문의만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수원·의왕·안양 등 경기 서남부 5곳을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첫 주말 해당 지역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매수 문의가 급감하는 등 관망세로 돌아섰다. 서울도 정부의 12·16대책과 코로나19 확산 영향까지 겹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안양·만안구·의왕시 등지는 주택 매수, 매도자 모두 대책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 한솔아파트 전용면적 84㎡는 대책 발표일인 20일 최근 거래가보다 2000만~3000만원 싼 2억5000만원에 팔린 뒤 이후로 거래가 없다.

조정대상지역 효력이 21일부터 발휘되면서 그 전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대출 규제 없이 집을 사려는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곡반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조정대상지역 발표 이후 관망하는 모습”이라며 “대신 규제지역으로 처음 묶이다 보니 대출 규제나 양도세 증가 시점 등 이번 대책과 관련한 문의는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선구 구운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대책 전까지도 이어졌던 매매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없다”며 “일단 매수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쉽게 담벼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 장안구 일대도 관망세 짙다. 수원 장안구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문의·방문 고객이 지난주 대비 70~80% 정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의왕시와 안양시 만안구 일대는 예상치 못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위주의 규제라고 생각해서 조정지역 지정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 다들 놀란 분위기”라며 “양도세가 증가된다고 하니 일단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에 비해 추가 규제 대상에서는 빠진 용인·성남 등지는 여전히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투기과열지구 격상 가능성도 언급되다가 추가 규제에서 빠진 거라 큰 변동은 없다”며 “물건이 많지 않고 가격도 여전히 상승세”라고 말했다.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죽전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이달 중순 4억8000만원까지 거래되다가 15일에 4억7000만원으로 소폭 하향조정되는가 싶더니 대책발표 당일인 20일에 다시 4억8000만원에 올라서 계약됐다. /정연우 기자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27일 한국은행 금리결정에 촉각 코로나19 확산에 인하전망 무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하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 다만 한국은행이 감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하반기 중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기준금리 1.00% ‘가보지 않은 길’  
23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27일 한은은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00%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1.00%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금통위는 2003년 5월 사스 사태 당시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4.25%에서 4.0%로 내렸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하던 2015년 6월에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 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경제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으로 금리동결 기조는 강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문재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감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이르면 4월, 늦으면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증권가, 기준금리 인하 전망 무세  
증권가에서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로 인하할 것이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이번 주에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 연구원은 “당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이후 지역감염이라는 새로운 감염 경로가 발생해 경기 하강 요인이 부각될 여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최근 대통령과 경제

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모든 건 의사를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기준금리를 비롯한 각종 정책 가용 수단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백운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방어에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도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03년 SARS 당시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그 결과 글로벌 통화량이 회복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경기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로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기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주 기자 hj89@



# 화진포 별장 분양!

99㎡ : 1억 5천만 원 | 53㎡ : 7천만 원

\* 고성 실제 전경입니다.



# 제주 별장 분양!

90㎡ : 1억 3천만 원

\* 제주 한림읍 협재리 실제 전경입니다.

### 분양특전

- 1) 1년 365일 이용
- 2) 개별 등기 가능
- 3) 1가구 2주택 해당안됨
- 4) 회사, 개인, 동호회 별장

문의 : 02-541-0113

## 명품 해외 골프

- 1. 하와이 골프 8일 795만 원  
오아후, 빅아일랜드 관광골프
- 2. 터키 안탈리아 골프 10일 529만 원  
비즈니스 왕복 레그넘 카리아
- 3. 뉴질랜드 남섬 골프, 관광 8일 495만 원  
퀸스타운 관광
- 4. 아프리카 사파리+골프+트레킹 8일 685만 원  
탄자니아 세렝게티 사파리, 킬리만자로 트레킹
- 5. 남아공 골프+빅토리아 폭포 10일 780만 원  
케이프타운, 희망봉, 얼스골프, 빅토리아 폭포 관광
- 6. 호주 시드니 골프 관광 8일 495만 원  
PGA 코스
- 7. 서호주 골프, 투어 8일 420만 원  
퍼스 골프, 아웃백 자연관광



## 사우나, 가정에서 즐긴다!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 건강 파트너



-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 원적외선 사우나
- 캐나다산 고품질 원적외선효과
- 자동온도조절
- 인체공학적인설계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IL Tour 02-541-4242  
홈페이지 : <http://www.iltour.co.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golfcondo>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 B/D 717호 FAX : 02-542-9822 카카오톡 아이디 : golfcondo

# 흑자전환 비결은... 국내·외 내실강화로 '턴어라운드'



정성필 대표 나선 이후 실적 개선  
외식사업 적자매장 과감하게 정리  
투썸 매각, 부채비율 300%대로 ↓

CJ푸드빌이 지난해 적자 폭을 대폭 줄이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서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지난 2015년 41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이후 2016년 23억 원, 2017년 38억 원, 2018년 434억 원으로 적자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에서는 6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3분기 누적 순이익 181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905억 원)과 대비 2배 이상 신장한 규모다.

CJ푸드빌은 2018년 7월 정성필 대표가 구원투수로 나선 이후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다. 정 대표는 CJ헬로비전과 CJ CGV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재무통'으로 잔뼈가 굵다. 정 대



뚜레쥬르 베이징 오도구점 전경

/CJ푸드빌

표는 CJ푸드빌 대표에 오른 뒤 외식사업에서 적자매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남은 매장은 특화 매장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CJ푸드빌 브랜드 국내 점포는 2018년 4분기 기준 2566개에서 2019년 3분기 1628개까지 절반이 줄었다. 특히 계절밥상 점포 수는 2017년 54개에 달했으나 현재 15개로 대폭 줄었다. 빙스 또한 2014년 이후 매장 80여 개를 유지하다 현재 41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자회사 투썸플레이스 지분 45%를 2025억 원에 앵커에쿠

티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투썸플레이스 매각으로 6000%가 넘었던 부채비율은 300%대로 내려갔다.

해외 사업 역시 내실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 내 오픈했던 '빙스' 매장은 지난해 1호점 폐점으로 완전히 철수했다. 앞서 2017년 싱가포르의 비비고 매장을 철수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일본 진출 9년 만에 CJ푸드빌재팬을 완전 정리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중국에서는 현지 사모펀

드인 호센캐피탈로부터 약 87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자금 수혈을 받으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CJ푸드빌은 중국 뚜레쥬르 5개 법인 중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법인을 합쳐 호센캐피탈과 합작법인인 비앤씨 크래프트(B&C Craft)를 설립했다.

CJ푸드빌은 최근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서비스를 강화하며 변화하는 외식 트렌드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계절밥상은 가정간편식(HMR) 메뉴를 확대하며 온라인 식품 배송 업체 마켓컬리에 입점시켰다.

뚜레쥬르는 지난해 9월 배달 앱 요기요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배달 서비스 매출은 출시 초기보다 60% 이상 늘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특히 수요가 많아 평일 대비 약 20% 이상 매출이 높다.

이에 CJ푸드빌은 서비스 채널 및 매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빙스는 HMR '다잉인더박스'(Dining in the Box)를 출시하고 배달 앱과 제휴해 O2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피

자와 폭립, 치킨과 웨지 감자를 한데 구성한 빙스 '파티박스'는 합리적인 가격과 철저한 위생 관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1월~2월 14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빙스, 계절밥상 등은 특화 매장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에서도 투자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적자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냈다"라며 "앞으로는 외식 브랜드 사업이라는 본업을 강화하고 트렌드인 O2O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빙스 '파티박스' 제품

## 최종결과만 남은 진에어, 연내 제재해제 기대

진에어, 국토부에 '추가 계획' 제출  
제재 해제 위한 경영문화 개선 박차  
내달 추중... '사외이사 선임' 주요안건

국토부의 장기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제재 해제를 위한 최종 결과만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항공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가 커지자 정부는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장기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의 제재 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보이콧 재팬'과 더불어 제재까지 겹치며 적자전환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추가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나서며 연내 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로부터 추가 개선 사안을 요구받은 직후 다시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가 최종 제출했던 보고서를 검토해 추가 개선 사안을 요청한 바 있다. 비공식적인 경영 간섭 배제·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이에 진에어가 지난해 9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또 다른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17개 항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에 여러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종 결과로써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진에어가 12월 말 이후 이사회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계획을 제출해 그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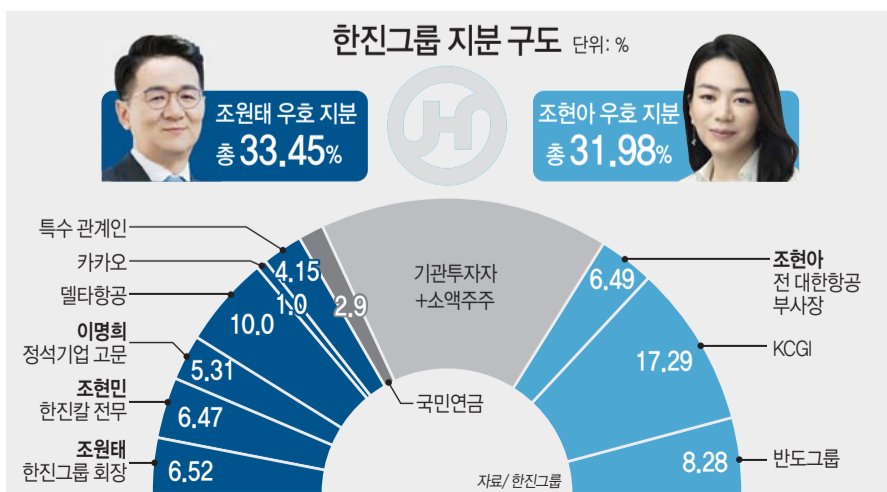
국토부에서 진에어 제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어떻게 낼 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에어도 제재 해제를 위한 경영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오는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국토부가 요구했던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이 다뤄지게 됐다. 진에어는 남택호·박은재·이우일·정종원 등 4명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주요 내용으로 올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추가매입... 조원태 회장에 힘신나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그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타항공은 최근 한진칼 지분을 1%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10%였던 지분은 11%로 확대됐다. 약 5개월만에 첫 추가 매입한 것이다. 오는 3월 앞두고 있는 한진칼 주주총회 이후에도 지속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까지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한진 총수일가(18.3%)와 재단 등 특수 관계인(4.15%)에 더불어, 백기사



델타항공(11%)과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카카오(1%),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자가보합·사우회(3.81%)까지 합해 38.26%다. /김수지 기자



지난 21일 포스코케미칼과 OCI가 서울 중구 OCI본사에서 고순도 과산화수소 생산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왼쪽)과 김택중 OCI 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OCI

## 포스코케미칼, OCI와 합작법인 설립 종합화학분야 사업확장 본격화

2022년 상업 생산 목표  
광양제철소서 COG 공급

포스코케미칼과 OCI가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포스코케미칼과 OCI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고순도 과산화수소 생산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화학사업 분야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MOU)으로 손을 잡은 양사는 지난 21일 과산화수소 제조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법인 지분은 포스코케미칼 51%, OCI 49%로, 오는 2022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고순도 과산화수소는 철강공정 부산물인 코크스로 가스(COG)로부터 얻은 수소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식각과 세척에 사용된다.

필수 멸균제로도 쓰이는 과산화수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도 쓰이는 물질이다. 과산화수소의 핵심원료인 COG는 광양제철소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다.

이번 합작사업을 통해 OCI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경제적으로 확보하고 현재 운영하는 과산화수소 사업의 경쟁력과 지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스코케미칼은 철강공정 부산물을 원료로 화학제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소재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종합화학분야로의 사업확장을 본격화한다.

김택중 OCI 사장은 "과산화수소 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함께 모색할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포스코케미칼과 다양한 합작사업들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고부가가치 화학과 소재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며 "포스코케미칼이 가진 화학 원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과 OCI의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로 새로운 사업 기회와 수익창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 ‘택시와 상생’ 타다 프리미엄, 지원확대 등 진입장벽 낮춰

“무죄판결 후 사회적책임 실천”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등  
상생안 계획 수립, 내달 시행

프리미엄 가입문의 10배 늘어  
차량 최소 1000대 확보 목표



타다 프리미엄 차량 모습.



/타다

최근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된 타다가 택시와의 상생에 나서며 모빌리티 시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3일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첫 행보로 택시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실천한다”며 “국민의 이동 기본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다는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장벽을 대폭 낮춘다. 프리미엄 차량 구매 시 지원금을 확대하고,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등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수요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타다 프리미엄은 K7 세단 차량을 이용한 고급차량 호출 서비스로 최대 4인까지 탑승 가능하다.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예상요금, 경로, 예상 도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호출을 시작하면 운행 가능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이 바로 배차된다. 타다 프리미엄의 기본요금은 5000원(2km)이며, 이후에는 도착지까지 100m 당 122원의 거리요금과 30초당 154원의 시간요금이 함께 계산된다. 지난해 7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타다는 새롭게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개인택시 운전자와 택시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K7 세단 차량으로만 제공하는 차종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동안 플랫폼 수수료가 면제해준다.

프리미엄 차량은 택시 면허를 보유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확장한다는 것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늘린다는 걸 의미한다. 타다는 현재 90여 대에 불과한 프리미엄 차량을 최소 1000대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다.

타다 관계자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프리미엄 가입 문의는 판결 이전 대비 최고 10배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다는 기업의 수행기사, 고객 의견, 공항 이동 등 매출이 높은 고급 수요에 프리미엄에 우선 배정, 드라이버들의 수입 확대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타다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택시 운행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11인승 호출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채용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현재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의 약 25%인 3000여 명은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택시 운

행 경력자들이다. 타다가 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상생 노력을 밝혔지만 난관은 남아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가 27일 또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로 타다 금지법의 운명이 정해질 전망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반발도 거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타다의 불법영업을 규탄하고 임시국회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적극지원

수입선 발굴, 온라인 전시회 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중진공은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수입선 발굴과 함께 온라인 전시회 참여를 돕는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중국 내 지역 봉쇄 및 물류 제한 등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선 발굴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거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 전문기업과 협력해 원부자재 공급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체 수입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 내 온라인 전시관 입점과 온라인 전시회 홍보, 마케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전시회 등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됐거나 대면 거래가 불가능해 해외 판로 개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이나 마스크 등 위생용품 수요 급증으로 기회가 많았던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중진공 고비즈코리아에서, 내용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코로나19 피해 中企 자금신청 1.3만건

소진공 준비자금 200억 불과  
7617건 신청, 총 3980억 달해

지역신보 5363건, 1827억 접수  
집행기업은 100곳, 34억 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관련 정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몰림듯이 몰려들고 있다. 1주일여 만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 정책자금 신청에 1만3000건이 접수된 것.

이 때문에 당초 계획한 예산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추가 증액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에는 지금까지 총 7617건의

신청이 몰렸다. 신청 금액만 3980억원으로 앞서 준비한 200억원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또 이달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달 20일 기준으로 5363건, 1827억원의 자금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신청액이 준비자금인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00개 업체에 대해 34억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중에서는 음식·숙박·소매업종 등에 신청이 집중됐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소상공인에 비해 신청 증가 추이가 더딘 편이지만 기계·금속 제조업체와 여행·레저업체들의 상담과 접수가 줄을 이고 있다.

105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에 나선 기술보증기금(기보)에는 20일 기준 82

개 기업이 167억원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신청 기업 중 70곳에 147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 중 기계·금속 제조업이 27건(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15건(46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13건(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50억원 규모 지원자금을 준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는 343개 업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상담했고, 이들이 희망 신청 금액은 9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 업체 중에는 기계·금속 제조업이 65건(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레저업 40건(108억원), 섬유·화학 제조업 40건(87억원), 자동차부품 제조업 30건(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자금이 집행된 업체는 9곳으로 지원금액은 13억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가격·생산량 조절, 시장 교란 ‘엄격 금지’

중소협동조합 공동사업 기준 마련

공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 시장을 교란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해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를 담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해당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조합들이 위법 여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승호 기자

## 한샘, 신제품 침대 50% 할인 이벤트

매트리스 3종, 침대 구매고객 대상

한샘이 2020년 상반기를 맞아 ‘홈족(Home+族)’을 위한 다양한 신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선보인다. 3월말까지 신제품 포시즌 매트리스 3종과 한샘 베스트 침대를 구매하면 침대에 대해 50% 할인혜택 등 이벤트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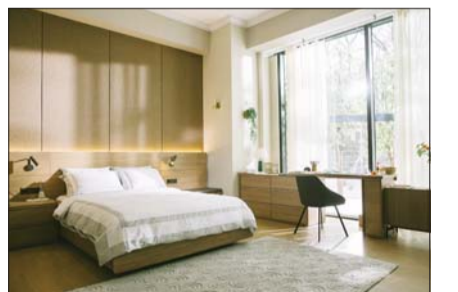
한샘은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 신상품을 자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샘디자인파크, 한샘인터리어대리점에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로 503 아트월’ 침대는 아트월처럼 고급스러운 벽판별을 활용해 호텔식 침실을 꾸밀 수 있는 제품으로 무드조명, 핀조명 등 간접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

를 연출하고 콘센트, USB 충전포트, 조명스위치 등을 하나로 모은 통합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다양한 가구와 소품으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있도록 한 ‘유로 504 데코’ 침실은 협탁, 서랍장 등이 패키지로 구성돼 있고, 퀸(Q)사이즈 침대와 슈퍼싱글(SS)사이즈 침대 2개를 서로 연결해 패밀리형 침대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포시즌’ 매트리스 신규 라인업인 ▲포시즌 올인원 ▲포시즌 클린 ▲포시즌 구스 3종도 내놨다. 포시즌 올인원은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 ‘포시즌’의 모든 기능을 담은 제품으로 수면습관과 취향에 따라 부드러운 느낌의 ‘메모리폼 토



한샘 유로 503 아트월 침대(위)와 한샘 밀란 303 매트 박박이장.

퍼’, 탄탄한 느낌의 ‘포켓스프링 토퍼’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

## 교육부 개학연기 결정

코로나19 대응 조직 확대·개편  
중국 유학생 공동대응단 구성  
교직원 출근, 상황 예의주시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확산이 진행되면서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키로 결정했다.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결정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일은 당초 3월 2일에서 9일로 미뤄진다. 개학은 연기되지만 교직원들은 출근한다.

교육부는 앞서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박백범 차관을 단장으로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안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실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대응 조직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서울시와 중국 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엄정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교육감들의 지역 상황 판단과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감안해 개학 연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개학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21일 10시 기준 전체 2만528개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중 71교(21일 10시 기준)가 개학 연기나 휴업 중이었고, 지역별로 개학 연기나 휴업 학교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가 6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울 5곳(유치원 3곳, 초등학교 2곳), 경기도 특수학교 1곳 등이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올라온 ‘초·중·고 전면적인 개학연기를 요청합니다’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개학을 3월 9일로 연기했고, 경북도교육청도 교육부에 개학 연기를 위한 학사일정 조정 협의를 신청해 협의해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조동성 인천대 총장 상남경영학자상 수상



국립인천대학교는 조동성 총장(사진)이 지난 21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동계정기총회에서 상남경영학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남경영학자상은 한국경영학회가 한국의 경영학 발전과 경영학자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1995년부터 매년 1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조총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78년부터 36년간 서울대 경영대에서 전략 및 국제경영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지역원(현 국제대학원) 원장과 경영대학장을 역임했다. 영어 16권, 중국어 5권을 포함한 65권의 저서와 143편의 학술논문을 출판했다.

2016년부터 국립인천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집중연구대학’, ‘매트릭스 칼리지’를 도입하는 대학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 ‘대입 막차’ 162개 대학서 9830명 추가 선발

## 2020학년도 대입

전년비 3개교 줄고 2396명 늘어  
동국대·한국외대 등 추가모집  
성적 따라 모집단위 염두해 지원

전국 162개 대학이 2020학년도 대입에서 9830명을 추가모집한다. 올해 추가모집 규모는 전년도 165개 대학 7437명에서 대학 수는 3개교 감소했지만, 인원은 2393명 증가했다.

추가모집 대학 중 전년도에 추가모집이 없었던 동국대 서울캠퍼스 7명,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33명, 홍익대 서울캠퍼스 22명을 각각 추가 모집해 올해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대·치대·한의예과 추가모집도 있다. 건양대, 계명대, 고신대, 동국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인하대, 제주대 의예과에서 수능 일반전형으로 각 1명씩을 추가모집한다. 원광대의 예과는 2명을 모집한다. 치의예과는 부산대, 원광대가 각 1명, 조선대 2명을 모집하고, 한의예과 중 상지대가 1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 2020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현황〉

대학	2020모집인원	2019모집인원	증감	원서접수 마감시간
가천대	14	4	10	2.26 11:00(예체능2.25)
가톨릭대	9	12	-3	2.25 17:00
광운대	16	24	-8	2.25 19:00
덕성여대	8	6	2	2.26 10:00
동덕여대	12	17	-5	2.25 14:00
삼육대	8	1	7	2.26 17:00
상명대(서울)	5	7	-2	2.25 12:00
서경대	9	10	-1	2.26 14:00
서울여대	12	22	-10	2.26 12:00
세종대	20	43	-23	2.26 12:00
평택대	27	10	17	2.26 15:00
한경대	48	26	22	2차 2.26 16:00
한성대	12	10	2	2.25 18:00
한세대	18	5	13	2.26 13:00
한신대	10	14	-4	2.26 13:00
협성대	39	32	7	2.26 15:00
홍익대(서울)	22	0	22	2.26 12:00

/자료=진학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번 추가모집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사실이 없거나 정시모집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 정시모집에서 합격했다라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정시모집 합격자의 경우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추가모집의 경우 한 대학 내에서 여러 전형

이나 모집단위에 중복 지원할 수는 없지만, 수시모집 6회 이상 제한, 정시모집 1회 3회 이상 제한 등 대학간 복수 지원은 제한이 없다.

여러 대학 지원이 가능해 추가모집 경쟁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또 다수 중복 합격자 이탈로 미등록충원도 많이 발생한다.

전형방식은 일반전형 인문/자연 계열의 경우 수능 100% 선발이 다수다.

일부 대학은 학생부 100% 선발이므로 수능 미응시자나 성적이 저조한 경우 학생부 전형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7일 21시까지로 각 대학별 원서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이 진행된다. 합격자는 접수기간 이전에 발표되며 등록기간은 28일까지다. 대학별 원서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강남대, 신한대, 한경대 등 추가모집을 1차와 2차로 구분하는 대학도 있는데, 1차 추가모집 이후 결원 발생 시 2차 추가모집을 갖는 것으로 1차에서 마감될 수 있기에 2차를 염두하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1차에 지원해서 불합격된 경우도 2차 모집이 진행될 시 지원 가능하므로 다시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 연구원은 “추가모집은 수시, 정시 전형을 통해 합격한 수험생은 지원할 수 없고, 불합격자 중 재수를 결정한 경우도 있기에 합격선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이라면 대학 내 모집인원이 많은 모집단위를 우선 고려할 것이기에, 반대의 경우라면 모집인원이 적은 모집단위 중 선호도가 있는 모집단위를 지원하는 것이 총원합격 가능성까지 염두한 지원 전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 삼육보건대

###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세미나

삼육보건대학교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교내 소강당에서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혁신지원사업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대학 관계자와 재학생,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국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을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핵심역량 교육운영체계 및 성과분석 활용방안’, ‘역량기반 교육과정 사례’ 특강이 진행됐고, ‘글로벌혁신’, ‘교육혁신’ 등 각 분야별 성과 발표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용수 기자



## 중앙대

### 흑석역 내 창업지원 공간 개관

중앙대는 24일 흑석역 내 창업공간인 ‘중앙대 흑석역 청년창업 문화공간’과 청년창업가들의 교류 공간인 ‘창업발전소 Express(사진)’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흑석역 청년창업 문화공간은 메트로9호선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시와 동작구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중앙대가 운영하는 지하철 내 최초 창업문화공간이다. 제품 상담, 시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창업발전소 Express는 중앙대 서울캠퍼스 옆 지상 3층 연면적 145㎡ 규모로 청년 창업가들의 교류 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및 교육공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로 구성된다. 두 공간은 중앙대 캠퍼스타운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조성됐다. /한용수 기자

# ‘코로나19’에 취업준생 64% “취업일정 차질” 전국대 3월16일 개강... 1주 추가 연기

잡코리아는 신입직 취업준비생 17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3.5%는 “이번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6.5%였다.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복수응답)으로는 ▲‘기업들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축소할까 우려된다’

가 응답률 5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업들의 채용일정 연기로 향후 기업끼리 일정이 겹칠까 우려된다’는 응답도 47.9%로 높았다. 이어 ▲좁은 공간에서 치러지는 자격시험 등 응시가 우려된다(32.6%) ▲취업박람회 연기 등으로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줄어들었다(30.8%) ▲대학 내 기업들의 채용설명회 취소 등으로 기업정보를 구하기 힘들다(26.2%)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전국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역 사회 감염 단계로 진입하는 등 악화된 따라 교내 협의를 거쳐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1주일 추가로 연기해 3월 16일 개강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대는 앞서 개강을 1주일 연기한 3월 2일 개강하기로 했었다.

개강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수강신청 정정 기간도 1주일 추가 연기될 예정이다. 또 당초 졸업생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예정했던 단과대

학별 졸업 학위복 대여를 불가피하게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학교와 제52대 총학생회장은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를 졸업생 및 학교 구성원들 간의 교차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학위복 대여를 취소하게 됐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에 졸업생과 학부모님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드리며 계획 취소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THINKWARE

아이나비

# 아이나비 CONNECTED

스마트폰으로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아이나비 QUANTUM2

국내유일 전후방 QHD 커넥티드 블랙박스



## 아이나비 Connected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술) Connected 기술을 탑재하여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통신형 블랙박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나비 CONNECTED

전·후방 320° QHD

F1.6 후방렌즈 | Vision BSD | Extreme ADAS | 울트라 나이트 비전 | 전방위 주차녹화 | 주차 저전력 강화 | Format Free 2.0 | Drive X



**NH선물, 화훼농가 돕기 꽃나눔 행사**  
NH선물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화훼 수요 감소 및 RK Rp0가격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처한 화훼 농가를 위해 꽃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NH선물 임직원은 고객사인 KBI메탈을 방문해 꽃을 전달하고 꽃 소비 촉진 활동에 대해 안내하며 동참을 요청했다. 이창호 NH선물 대표이사(왼쪽 네번째)와 신동성 KBI메탈 영업·구매 담당 이사(왼쪽 세번째)가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선물



**BNK부산은행, 해운조합과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 맞춘다**  
BNK부산은행이 한국 해운조합(KSA)과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내외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하 어려움 겪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향후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부산은행 손대진 여신영업본부장(오른쪽)이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부산지부장과 포즈를 취했다. /BNK부산은행



**코트라, 코로나19 사태 대응 상시 화상상담**  
KOTRA(코트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조치로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코트라는 지난 21일 중화권 대상 1차 화상상담회에서 바이어 28개사, 국내기업 37개사와 47건의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회는 그동안 중국지역 전시회 참가가 어려워지면서 신규 바이어 발굴에 애로를 겪던 국내 소비재 기업과 기존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면서 거래 진척이 되지 않던 국내기업에 큰 도움을 줬다. /코트라

## 마음 전하는 '따뜻한 인생 한끼' 접수

중기사랑나눔재단 내달 6일까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4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2분기 '따뜻한 인생 한끼'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따뜻한 인생 한끼'는 가족, 연인, 친구 등 평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복지시설 중 사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는 '천사 프로젝트'다. 이번 인생 한끼 프로그램은 JTBC 인기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유현수 셰프의 재능기부로 진행하며 선발자에게는 유현수 셰프가 운영하는 '두레유' 식사 이용권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인생 한끼 신청사연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2분기 선발인원은 300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우리에프아이에스 '클린로드90' 캠페인

우리銀 IT운영 장애건수 '0' 기록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무결점 IT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90일 주기로 '클린로드 90(Clean Road 90)'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이번 무장애 달성 캠페인을 통해 우리은행 차세대시스템을 안정화시켜 최근 90일 동안 IT운영 체계상 장애건수 제로(0)를 기록했고, 차세대시스템 오픈 이전인 2017년도 대비 지난해 연간 장애 건수도 57% 감소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맹목적인 형사고소 병행, 최선일까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법은 강제성 있는 규범이다. 크게 두 가지 강제수단이 있다. 첫째, 범위반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사적집행), 둘째, 국가가 나서서 범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공적집행)이다. 사적집행이 자연법에 가까운 수단이다. 공적집행은 처벌 근거법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인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 정서는 공적 집행쪽이 더 가까운 듯하다. "법대로 하자"는 사람은 대개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한다. 처벌권을 갖는 국가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 정서가 기업인들에게도 남아있다. 돈을 받아내는 수단인 민사소송만 하는 것보다 처벌 리스크까지 안겨주는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가해자를 직접 추궁하는 반면, 형사에서는 피해자 대신 국가가 그 역할을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내 일'을 하는 것인 반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국가는 '남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일'과 '남의 일'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내 일'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처리가 빠르다. '남의 일'은 '남'에게 일일이 사정을 들은 후 처리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다. 피해자에게 빙의(憑依)한 듯 형사 고소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는 수사관은 드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않다.

통계적으로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성공시킬 가능성은 낮다. 명백한 위법이 드러나지 않는 한 국가는 처벌권을 행사하는데 신중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로서는 민사에서 승소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게다가 민사소송 자료는 쌍방에게 즉시 공유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패'를 알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낸 자료는 참고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좀처럼 공유되

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깜깜이' 상태일 때도 많다. 국가를 움직여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피해자의 손으로 직접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통상 더 효율적이다.

물론 국가의 도움을 꼭 청해야 할 때도 있다. 가해자가 도망가버려 잡지 못했거나, 가해자에게 돈이 없어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배상 이외에 처벌이 꼭 필요하거나, 피해자에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IT 업계에서도 민사로 대응할지 형사로 대응할지 고민되는 사례가 많다. 경쟁사가 내 서비스를 베꼈거나, 인력이나 영업비밀을 빼갔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도를 넘은 갑(甲)질을 하는 등이다. 민사와 형사의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저 둘 다 하면 좋겠지 싶어서 덩석 형사 고소를 병행했다가 무혐의 처분이라도 내려지면 가해자는 기고만장해지고 민사소송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때로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 LG전자·트윈스, 호주 산불복구에 기부금

## 비영리단체에 4억원 전달

LG전자가 호주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다. LG트윈스 선수단도 함께했다.

LG전자는 22일 호주법인이 호주 비영리단체 와이어스에 기부금 50만 호주달러(약 4억원)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LG트윈스 선수단은 현지 전지훈련 일정 중 기부금 전달식에 동참했다. 팬 사인회를 진행하며 모금활동도 벌였다.

LG전자 호주법인 임직원들도 심시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모았으며, LG전자는 모금액만큼을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다음달 와이어스에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LG전자는 10억마리 이상 야생동물이 죽고 서식지 30% 이상이 없어지는



임상무 호주법인장(왼쪽 첫번째)과 류종일 LG 트윈스 감독(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등 산불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기부금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LG전자 임상무 호주법인장은 "6개월에 걸친 산불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호주와 호주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은행과장 박민우

## 부음

▲이종택씨 별세, 김복덕씨 배우자상, 이재권(CN Worldwide 대표이사)·금호·소연씨 부친상, 정세은씨 시부상, 백기창·김장욱(신세계아이앤씨 대표이사)씨 장인상 = 23일,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성남영생원 수임리 갑산공원 ☎ 010-2912-7986  
▲이충환씨 별세, 이주영·이주엽(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씨 부친상 = 23일 오전 11시 15분, 경기 군포 지샘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오전 9시. ☎ 031-389-3774

▲김계진씨 별세, 유미자씨 남편상, 김정현·김성원(KBS 공채 24기 개그맨)씨 부친상 = 15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광주시 삼성개발공원묘원 엘리시움. ☎ 02-3779-1924  
▲이범덕씨 별세, 이정우(세계일보 산업부 기자)·하영(수원시립교향악단 단원)·주영(회사원)씨 부친상, 배호주(GEA Korea 팀장)씨 시부상 = 22일 오후 8시, 대구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 301호(조문 사절), 발인 24일 낮 12시 30분 ☎ 053-766-4444  
▲권오석(전 울산 화성고 교사)씨 별세, 권혁철(부산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권혁범(TV조선 심의실장)·권영란(울산 마곡고 교사)·권혜경(울산 대현고 교사)·권선아씨 부친상, 최장식(변호사)·이수식(울산과학대 교수)·백영춘(현대백화점 부장)씨 장인상, 윤애선(부산대 불

문과 교수)·이혜경(마취통증 전문의)씨 시부상 = 23일 오전 7시 43분, 울산 세민에스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 052-920-1244  
▲전병우씨 별세, 전홍배(MBC 촬영감독)씨 부친상 = 23일 오전,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 02-860-3500  
▲양옥선씨 별세, 김문섭(전 안성시 주택과장)·의섭(삼성SDS 수석)·문선씨 모친상, 박유한(KBS 보도기획부장)씨 장모상 = 22일,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24일 ☎ 032-432-3350  
▲최귀선씨 별세, 이명호(서희건설 관리본부장)씨 모친상 = 22일 오전 2시, 경주전문장례식장 특 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경북 경주시 현곡면 선영. ☎ 054-777-4072



# 코로나19 확산에 줄줄이 휴점 유통업계, 매출급락 등 직격탄

신세계백, 롯데백 등 7개 점포  
확진자 방문에 임시휴점 결정  
'소비심리 위축' 매출 최대 5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단위로 확산하면서 유통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확진자가 다녀갔던 점포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씩 휴점하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하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23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식품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 돼 23일 지하 1층 식품관을 임시 휴점한다.

신세계 강남점은 22일 서초구 감염병관리팀과 비상방역팀의 현장 조사 중인 오후 8시에 영업을 앞당겨 종료했으며,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식품관 외 타구역 미방문, 확진자 방문과는 별도로 선행된 소독 등 사전 방역 활동과 관련해 현장조사팀과 협의를 거쳐 방문 구역만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청

으로부터 19일 확진자 방문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 휴점에 들어갔다. 대전 두 번째 확진자(372번)로, 19일 오후 3시경 대전행 기차를 대기하던 중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지하 1층에 약 30분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이날 하루 방역작업을 실시한 후 24일부터 정상 영업할 계획이다.

20~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 확인돼 임시 휴점을 한 대형마트·백화점은 7개 점포다.

이마트 성수·킨텍스·질성·대구비산점, 홈플러스 광주계림점, 롯데백화점 전주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등이다. 이들 점포의 하루 평균 매출은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작업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는 게 확인되면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짧아도 하루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매출 피해가 불가피하다.

휴점으로 인한 피해도 문제이지만, 소비 심리 위축이 더 심각하다는 게 유통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초 코로나 공포가 절정일 때 마트·백화점·면세점 등은 고객이 급격히 줄면서 적게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가량 하락했다.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매출 감소폭이 최근 회복세에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도 없게 됐다"고 했다. 마트의 경우 온라인물 수요 증가로 매출 감소폭을 완화해왔으나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른 유통 채널처럼 매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마트에 닭강정을 진열하고 있다. /이마트

## 이마트, 진미채 닭강정 등 이색메뉴 7종

닭강정 2종, 롤 5종 선보여

이마트 즉석조리 코너에 이색 요리들이 등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레시피를 사용한 요리로 알려지며 더욱 눈길을 끈다. 이마트가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색 요리 '진미채 닭강정', '매콤멸치 닭강정' 등 닭강정 2종과 '불닭소스 돈가스롤', '타코야보카도 롤' 등 캘리포니아 롤 5종을 선보였다.

특히, 진미채 닭강정, 매콤멸치 닭강정은 '치밥'의 유행과 함께 반찬으로 먹는 치킨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일명 '반찬 치킨'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 냈다. 100g 당

2,180원으로 시중에 파는 일반 닭강정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다.

진미채 닭강정은 튀긴 진미채로 고명을 했고, 이마트에서 직접 만든 소스 '진미채 강정소스'로 버무려 밥과 잘 어울리도록 했다.

매콤 멸치 닭강정 역시 볶음멸치와 파리 고추를 같이 넣어 매우면서도 단짠(달고 짜고)한 맛을 느끼도록 했으며, 이마트 단독 소스인 '멸치 강정소스'로 버무려 밥과 함께 비벼먹어도, 볶아먹어도 잘 어울린다.

지난 13일 첫 선보인 진미채, 매콤멸치 닭강정은 출시된지 일주일만에 무게로만 2t 넘게 판매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신원선 기자

# 씨유튜브서 '편의점 요정' 웹드라마 공개

구독 10만 기념 '단짠단짠 요정사'  
27일 티저 공개, 내달 5일 첫 방송



CU 단짠단짠 요정사 /BGF리테일

CU의 공식 유튜브 채널 '씨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 돌파를 기념해 CU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판타지 로맨스 웹드라마 '단짠단짠 요정사'를 선보인다.

'단짠단짠 요정사'는 CU를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 요정 '하루'를 둘러싼 개성 넘치는 청춘들의 유쾌하고 발랄한 러브스토리를 그린 웹드라마다. 신인 배우들의 참신한 연기와 함께 최근 트렌드인 판타지 코드를 가미해 극의 재미를 높였다.

이 드라마는 이달 27일, 티저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3월 5일 CU 공식 유

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를 축하하는 댓글을 남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아이폰11 프로를 각각 증정한다.

또한, '단짠단짠 요정사' 분방 사수 이벤트로 매주 방송되는 단짠단짠 요정사 영상에 시청 소감 및 응원 댓글을 남기고 응모 페이지에 인증샷을 올린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에어팟 프로와 CU 모바일상품권(5천원 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씨유튜브는 지난해 말 리뉴얼 이후 편의점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CU 신상품과 프로모션 안내는 물론, 편의점 이용 꿀팁, 코믹 스토리 등 고객과 가깝게 접주, 근무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 '한봉지 650원' 민생짜장라면 선보여

이마트24, 가격 낮추고 품미 살려

이마트24가 390원 민생라면의 인기로 힘입어, 650원 짜장라면까지 선보인다.

민생짜장라면(사진)은 1봉지에 650원으로, 기존 인기 짜장라면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가격은 대폭 낮췄지만, 짜장 소스의 깊은 맛과 품미는 살렸다.

민생짜장라면은 깊고 진한 춘장맛과 볶음양파 분말과 볶음양파조미유 성분을 포함해 소스에서 진한 볶음양파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24는 일반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부터 국물이 없는 라면 매출이 오르기 시작함에 따라, 민



생짜장라면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24가 2019년 겨울(12~2월) 대비 봄(3~5월) 봉지라면 매출 증가율을 확인한 결과, 국물라면은 2% 소폭 증가한 반면, 국물 없는 짜장라면, 비빔라면 매출은 23%로 큰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선 기자

## CJ제일제당 '한뿌리 흑삼' 매출 2배 꺾음

CJ제일제당은 '한뿌리 흑삼(사진)'의 최근 4주간(1월 28일~2월 21일)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101%)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강식품 카테고리에는 선물세트 시즌인 명절 직전이 성수기인데, 올해는 설 연휴가 지난 직후에도 흑삼의 판매량이 증가했다.

'한뿌리' 제품 중 흑삼을 주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3종은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을 인정 받았다. 흑삼농축액인 '한뿌리 흑삼정 골드클래스', 스틱형인 '한뿌리 흑삼정 로얄블랙 엑스', 파우치 형태인 '한뿌리 흑삼지천보 진' 등이 해당한다.

흑삼은 인삼을 아홉 번 찌고 말려 면역력 증진에 유효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원료다. 흑삼이 일반적으로 한 번 증포 과정을 거치는데 비해 흑삼은 아홉 번을 찌고 말리면



서 흑삼과 마찬가지로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온라인 기획전도 마련됐다.

/김민지 기자 kmj@

### 유통단신

**더본코리아**  
배민오더 4000원 할인

더본코리아는 '홍콩반점0410(이하홍콩반점)·한신포차'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에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최대 4000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홍콩반점과 한신포차의 메뉴를 최소 주문 금액 이상 배달 주문하면 3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방문 포장 결제 서비스 '배민오더'를 이용하면 4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민지 기자

**풀무원녹즙**  
여주&무화과 출시

풀무원녹즙은 생으로 갈아 넣은 여주에 무화과를 넣은 녹즙 제품 '여주&무화과(사진)'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주는 도깨비방망이처럼 길고 울퉁불퉁한 모양의 박과 채소다. '여주&무화과'는 베트남에서 자란 여주를 사용했다. 건조하거나 열처리를 하지 않고 원물 그대로 갈아낸 퓨레 형태로 영양과 신선함을 살렸다. 여기에 여주 특유의 쓴 맛을 잡을 수 있도록 무화과로 건강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더했다.



/김민지 기자

## 임상실험 세계 3위 점프... 점유율은 하락

# 中에 밀려... 빛바랜 '임상 강국'

1상 프로토콜 수, 2018년비 급증  
1상·3상점유율, 5%대 견고히 유지  
韓, 다국가임상 글로벌순위 12위

신약 개발이 크게 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주도한 단일국가 임상시험(의약품 개발을 위해 1개 국가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인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이 글로벌 임상시장에서 2위로 도약하면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되레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임상시험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해 2019년도 전세계 의약품 임상시험 신규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단일국가 1상 프로토콜 수가 2018년 대비 8.80% 급증했다. 1상과 3상 점유율은 5%대를 견고하게 유지했다. 한국의 단일국가 임상 순위는 지난 2018년 4위에서 한단계 오르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건수는 지난해 총 713

건으로 처음으로 700건을 돌파했다. 전년보다 약 5% 늘어난 수치다.

전체 글로벌 임상시험은 지난 2016년의 급격한 하락에서 벗어나 최근 3년간 연평균 3.29% 증가하여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전체 프로토콜 수는 2018년 4346건에서 지난해 4435건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고, 1상과 2상 임상시험이 전년 대비 각각 7.51%, 7.71% 증가하며 글로벌 임상시험의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한국의 단일국가 임상시험 점유율은 2018년 4.75%에서 2019년 4.40%로 다소 하락했다. 이는 중국의 단일국가 임상시험 점유율의 급격하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참여한 다국가 임상시험 글로벌 순위는 12위를 유지했고, 한국의 전체 임상시험 글로벌 순위는 2018년 7위에서 한단계 하락한 8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이 6.44%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6년만에 점유율은 4.29%포인트 늘었고, 순위는 11단계 상승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진입 규제를 낮추

고, 임상시험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중국 정부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주도의 임상시험 관련 규제 개선과 획기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한 스페인, 호주 등 국가가 지난해 이어 2019년에도 글로벌 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2018년 3.98%에서 2019년 4.12%로 전년 대비 0.14%포인트 증가했고, 한 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했고, 호주는 지난해 3.17%로 전년 대비 0.1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배병준 이사장은 "지난해 국내 제약사 주도의 후기 임상시험(3상) 급증은 한국이 본격적인 신약개발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국내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국가임상시험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elle@metroseoul.co.kr

## 봄철 민감한 피부엔 '기초 공사팀'

'귀신애플' 민감성 피부진정에 탁월  
'콜라겐 크림 미스트' 마인드 테라피



데미코스의 '콜라겐 크림 미스트'

입춘이 지나고, 눈이 녹아 비나 물이 된다는 우수(雨水)가 지났다. 날이 풀려 나들이 등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봄처럼 화사하고 생기있는 메이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초미세먼지와 꽃가루, 황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피부염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가리기 위해 두꺼운 메이크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클렌징과 피부진정을 위한 기초 케어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따뜻한 봄날, 촉촉하고 생기 있는 피부 표현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기초 공사팀'에 집중해보자.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부가 붉어지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라면 아이소이 가 만든 '시카 더블 이펙트 애플(이하 귀신애플)'을 추천한다. 귀신애플은 천연 유래 보습 성분으로 이루어진 수분 베이스의 '복원층'과 오일 베이스의 '장벽층'으로 나뉜 신개념 2층상 시카 애플이다. 붉은기 개선, 민감 피부 진정, 피부장벽 개선 관련 임상을 완료해 봄철 깊어진 피부 고민을 보다 다각적으로 케어한다.

메이크업 시 울퉁불퉁, 울긋불긋 반복되는 고민성 피부가 신경 쓰인다면 올리브영 6년 연속 세럼 부문 1위의 '잡티세럼 II'를 추천한다.

아이소이 '잡티세럼 II'는 잡티개선은 물론 피부결, 피부톤, 과색소침착 등 총 8종의 피부 임상을 완료한 제품이다. 특히 '액체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불가리안 로즈오일과 미백기능성분 알부틴의 시너지 효과가 빠른 화이트닝을 돕는다.

에스테덤이 출시한 '카밍 바이오미메틱 크림'은 외부 유해환경의 자극으



에스테덤 '카밍 바이오미메틱 크림'



아이소이 '불가리안 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 (잡티세럼 II)'

로 인해 민감하고 연약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피부 균형을 유지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피부를 진정시키는 센시 시스템 기술이 적용되어 자극받지 않는 민감한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데미코스의 '콜라겐 크림 미스트'는 청량한 컬러와 은은한 향으로 마인드 테라피를 선사하며, 지친 피부에 수분 및 영양 성분을 공급해 외부 자극에도 버틸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고영양 크림 제형과 워터 제형의 2층상 포물러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피부에 닿는 즉시 일차적으로 보습 성분이 촉촉한 수분을 선사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대응의 효자 '우루사' 3년 연속 최고 매출

국내 매출 약 882억... 11% 증가  
지속적 성장... 연 매출 900억 목전  
적응증 확장하며 환자 니즈 충족

대응제약은 간판 제품인 우루사가 최근 3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우루사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합친 국내 매출은 약 882억원으로, 2018년 795억원 대비 약 11% 성장했다.

우루사는 2017년 720억원의 국내 매출을 달성해 역대 최초로 7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연간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 매출 90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조제용 우루사인 우루사 100mg, 200mg, 300mg의 연간 총 매출이 500억원을 최초로 돌파했다. 조제용 우루사는 2019년 연간 매출 50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424억



대응제약 우루사

원 대비 18.6% 성장한 수치다.

우루사의 성장 비결은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 적응증을 확장하며 다양한 환자의 니즈를 충족시킨 데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루사 300mg가 세계 최초로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담석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했다.

여기에 대응제약의 차별화된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과 우수한 영업력이 더해져 우루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대응 우루사, 복합 우루사 등의 일반의약품 또한 TV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동시에,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우루사의 간 기능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를 널리 알리고자 했던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응제약 전승호 사장은 "우루사는 1961년에 출시돼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은 신규 적응증을 기반으로 처방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일반의약품은 다양한 소비자 계층을 대상으로 브랜드 친숙도를 높여 기존 충성고객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위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 송가인이 고른 올해 봄자켓은 '르까프'

사이즈 조절 가능 허리스트링  
주머니 이밴드로 디테일 강조

생활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LECA F)가 화사한 봄과 어울리는 2020 SS 시즌 방풍자켓을 출시했다. 일명 '송가인 자켓'으로 불리는 이번 제품은 화려한 플라워 패턴과 디테일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봄자켓은 파스텔 톤의 핑크, 민트 플라워 패턴을 옷 전체적으로 프린팅하여 봄 분위기를 담아냈다. 핑크 컬러는 만개한 벚꽃을 연상케 하여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했고, 민트 컬러는 봄의 청량하고 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

'송가인 자켓'은 자켓 허리에 스트링을 추가하여 길이를 조절해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주머니에는 이밴드를 추가하여 손이나 소지품을 넣고 뺄 때 편리하게끔 디테일을 더 하였다. 경량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운 착용감과 소프트한 터치감이 뛰어나며, 구김이 적고 물에 강하다. 또 일체형 후드로 구성되어 날씨가 변덕스러운

환절기 시즌에 갖고 다니기 적합하다. 산뜻한 플라워 패턴으로 가벼운 들레길 산책이나 봄나들이 등 야외활동 캐주얼 웨어로 활용하기 좋다. 힙을 살짝 가리는 길이로 짧은 길이의 심플한 레깅스와도 잘 어울린다. 베이직한 스킷-팬츠를 믹스매치하여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송가인 봄자켓

## 아떼, 차별화된 색으로 'iF 디자인' 본상

LF의 여성 화장품 브랜드 '아떼(A THE)'의 스킨케어 라인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0'의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부문(Product and Package Design)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독일 하노버에 위치한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 주최 67년 전통의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레드닷',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힌다. 매년 독창

성, 실용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디자인/UX, 건축, 인테리어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디자인 결과물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56개국에서 7298개 후보작이 출품됐다.

아떼는 진정성 있게 제품을 만드는데 철학을 패키지 디자인으로 구현해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색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떼는 도형의 기본이 되는 원과 사각형의 형태에 정교한



아떼 이미지넷 X 'iF 디자인 어워드' 로고

금속 장식을 더 한 디자인으로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절제된 방식으로 드러냈다.

/조효정 기자

# 이랜드, 대구에 코로나19 지원기금 10억원 전달

### 대구지역 방역물품·생필품 지원

이랜드그룹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지역에 10억원의 긴급 기금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랜드는 대구지역 내 방역물품 및 생필품 지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금을 긴급하게 마련하여 전달하게 됐다. 이랜드는 대구 지역에 테마파크인 이월드와 유통업체인 동아백화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 복지재단 정재철 대표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구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랜드가 운영중인 대구 이월드 내에 83타워 전경. /이랜드그룹

한편, 이월드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휴장을 결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일부 지점(구마·

수성·본·강북점, nc아울렛 엑스코·경산점)에 대해 오는 24일 휴점 후 방역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코로나19’와 금융의 역할



기자 수첩

홍민영  
(파이낸스&마켓부)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새벽을 기점으로 123명이 늘어 총 556명이 됐다. 사망자도 4명으로 늘었다. 전례없는 공포에 길거리엔 사람의 발길이 끊겼고,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다.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담 지원은 지난 18일까지 8영업일간 5683건, 약 3228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지원 규모 역시 초반 나흘간 800억원에서 빠르게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근원지인 중국과 관련한 피해가 컸다면, 이제는 얼어붙은 내수시장에서 피해가 본격화됐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은 이런 때일수록 빛을 발해야 한다. 국

민의 삶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금융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사들은 본격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는 양상이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또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며,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을 실시한다.

이윤 창출과 디지털·글로벌 등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위급한 국가적 문제 상황에 직면한 국민을 돕는 것이 곧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는 틀림없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어수선한 금융권이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국민과 상생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때가 됐다.

/hong93@metroseoul.co.kr

# LG전자, 고진영 프로골퍼 후원... ‘LG 시그니처’ 알린다

LG전자가 여자 골프 최강자 고진영 선수(사진)를 통해 시그니처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2022년까지 고진영 선수를 공식 후원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선수는 계약기간 ‘LG 시그니처’ 로고가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게 되며, 시그니처 브랜드 홍보 대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고진영 선수의 뚜렷한 목표의

식과 도전 정신을 높게 평가해 후원을 결정했다. 활동 무대가 주로 해외에 있어, 글로벌 고객에 시그니처 브랜드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 선수는 “LG전자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선보여 LG전자의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LG 시그니처 론칭 후 2017년 ‘에비앙 챔피언십’ 공식 후원에 이



어 정상급 선수들을 후원하며 골프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오늘의 운세 2월 24일 (음 2월 1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농으로 한 말이 진실로 한 말 같으니 말조심. **48년생** 적금 터트 목돈이 들어온다. **60년생** 이혼은 신중히 현재 부인은 아진 아내이다. **72년생** 오후는 한가롭다. **84년생** 달콤한 말로 하는 협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 37년생** 손수가 먼 친척이 와서 안부를 묻는다. **49년생** 자녀들 집안에 항상 웃는 소리가 이어진다. **61년생** 평생 미련해서 유통성이 없어 한숨. **73년생** 인생은 이런들 어때하리 저런들 어때하리오. **85년생** 어제 일고 시작하자.
- 38년생** 입은 은혜가 생각나지만 갚을 길이 없다. **50년생**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62년생** 객지에서 고향 생각에 밤을 지새운다. **74년생** 건강한 신체를. **86년생** 용모가 너무 아름다우면 명이 짧다 했으니 성형주의.
- 39년생** 재주가 화려했으나 뜻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 **51년생** 꿈에서 황금을 얻었다면. **63년생** 내일 일을 미리 계획해두자. **75년생**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모르는척하지 않도록. **87년생** 공부만 방해와 성 같은 물산.
- 40년생** 남의 비위를 맞추려나 자신의 책임. **52년생** 집을 지으려면 기본설계에 충실. **64년생** 이루지 못한 꿈은 늘 아쉬움. **76년생** 사고는 예기치 않게 오니 미리 보험을 들도록. **88년생** 따옴기를 그러려다 집오리를 그리는 격.
- 41년생**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 방향을 찾아보자. **53년생** 종일 외로운 나그네 신세. **65년생** 부모님의 생신이니 가르침에 감사. **77년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리운 사람이 생각. **89년생** 한사람에게만 많은 장점을 주지 않는다.
- 42년생** 나이 들수록 지출은 많아진다. **54년생** 머리와 꼬리 없는 생선만 낚는다. **66년생** 미안박명이나 지금부터라도 모아놓도록. **78년생** 부모님의 재산이 많더라도 없어질 때를 대비해야. **90년생** 사소한 일에 꼭 대들지 마라.
- 43년생** 자식에게 거절만이 능사는 아닌데 방법이 없다. **55년생** 보함이 무엇보다 효자 노릇을 한다. **67년생** 흔한 지식을 소중히만 여기지 않도록. **79년생** 산란하게 하니 일찍 귀가. **91년생** 뱃속 깊이 사무친 원수를 만나는 날.
- 44년생** 부자는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데서. **56년생** 그린벨트가 해제되니 황재운. **68년생** 억지 부리지 말고 말머리를 돌려라. **80년생** 집 없는 거지가 하늘을 동정하는 격. **92년생** 새벽부터 상승세니, 오늘은 결과를 얻는다.
- 45년생** 죽느냐 사느냐에서 살게 된다. **57년생** 어느 시대나 세대 차이는 있었다. **69년생** 사직서는 쓰지 말고 출근하라. **81년생** 상관없는 일에 참견 말고 물건 정리하여 재고 파악할 것. **93년생** 신발 끈을 잘 매고 출발할 것.
- 46년생**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58년생** 부모공경이 대를 이으니 감사. **70년생** 이득이 덩굴째. **82년생** 강아지도 사람 카우는 만큼 애정이 있어야 한다. **94년생** 업무의 요점을 정리하여 효율을 높여보라.
- 47년생** 보람없이 헛되게 나이 먹은 것이 아니다. **59년생** 목이 말라도 샘물을 몰래 마시지 않는 정직함. **71년생** 진퇴양난 속수무책이다. **83년생** 조건이나 이치에 맞는 계약인지 잘 살펴라. **95년생** 조직에서 젊음수목 겸손하라.

## 김상희의四季

### 늘 입춘대길이 되길

지난 첫 일요일 늘 예정대로 2월 법회가 열렸다. 어김없이 입춘을 앞두고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고 쓴 첩지를 신도분들께 나눠 드렸다. 입춘 절기를 맞아 행하는 전통은 풍속을 뛰어넘어 하나의 작은 신앙과도 같다.

입춘날 신도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첩지를 대문이나 현관문에 붙였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중국은 물론 그 근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필자의 신도 중 한 분은 목감기가 심하여 기침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좋지 않았다.

우한 폐렴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법회 참석을 못 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쥐를 숙주로 하여 퍼졌다 했다. 먹는 것이라면 그 어떤 재료도 마다치 않는 중국인들의 관습이 또 한 번 세계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쥐는 쥐와 비슷한 모양새로서 어두운 동굴 습기 찬 곳에서 생활한다.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창궐하여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듯 경자년은 쥐(또는 박쥐)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 돈다. 경금(庚金)은 폐 대장에 해당이 된다. 자(子)의 쥐(박쥐)가 병을 옮기는 것이다.

음력2월이 되면 다소 안정세지만 3월(眞)까지는 안심할 수 없고 7월(申)에도 물난리가 나며 또 다른 전염병이 예상된다. 60년 전에도 120년 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 60년 지나는 경자년에도 비슷한 현상은 다시 찾아온다. 위생적으로야 청결하게 영양을 취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가정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발원하며 기도를 올리고 써 내려간 입춘지는 그야말로 행운의 부적이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늘 다독인다면 말 그대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 되어가리라.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토쿠는 가로,세로,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5	1	2	7	8	9
2	9	8	9	1	7
8	7	9	1	2	9
3	8	1	7	2	9
9	2	9	7	4	3
8	3	5	6	8	4
4	9	4	7	5	3
2	7	5	8	4	1
6	3	4	9	9	8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94호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할렘 브라운 저 | a9press | 15,000원

챗봇으로 실시간 정보 확인... 빅데이터로 관광객 경로 분석

# 코로나19 극복에 AI도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AI 전문업체인 와이즈넷과 카카오가 AI 챗봇을 통한 코로나19 정보 제공에 나섰다. 와이즈넷은 '코로나19 챗봇'을 출시했으며, 빅데이터 기업인 원투씨엠이 코로나19 관련 방한 중국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긴급대응 연구'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가 효과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작업에 AI를 투입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AI 및 빅데이터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 등보다 더 빠르게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의 확산 지역과 위험성을 예측한 것이 캐나다 AI 기업인 블루닷으로 알려지면서 AI 기술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 와이즈넷 '코로나19챗봇' 오픈 확진자·시설 등 맞춤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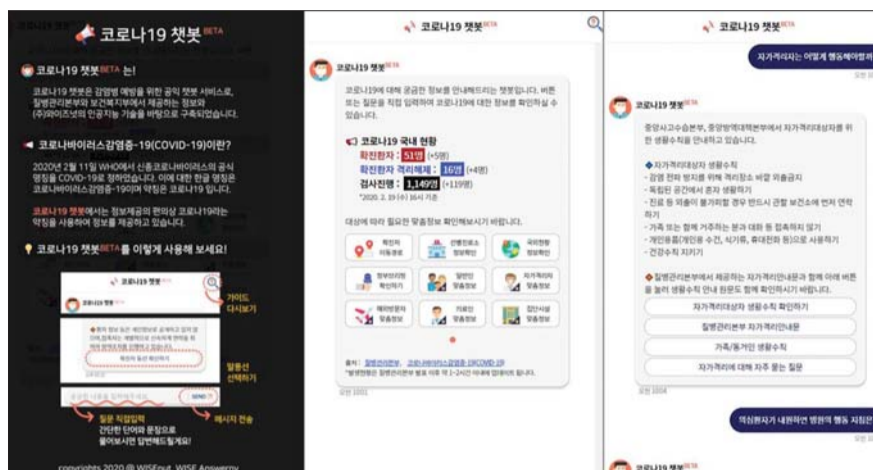
또 중국에서도 AI가 바이러스의 유전자서열 등 예방·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직원 대신 로봇이 식사를 공급하는 등 신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타이완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위해 AI가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통신사들이 감염 경로 예측을 위해 고객 기지국 접속 데이터 및 로밍 데이터를, 카드사들도 결제 데이터를 질병관리본부에 공급하고 있지만 AI 시대에 AI 및 빅데이터 활용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AI 및 빅데이터 기업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동참에 나섰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AI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와이즈넷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자사의 AI 챗봇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맞춤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챗봇' 베타 버전을 20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챗봇(BETA)'은 와이즈넷의 국내 최대 AI 챗봇 구축 노하우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공개 정보를 결합한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챗봇 '현명한 앤서



와이즈넷은 자사의 AI 챗봇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맞춤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챗봇' 베타 버전을 20일 오픈해 정부기관 등에 무료로 연동해주고 있다. /와이즈넷

니'를 적용했다. 기존 서비스가 국민 전체 대상의 FAQ와 확진자 위주의 단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확진자, 자가격리자, 일반인, 의료인, 집단시설 등 주요 대상별로 맞춤 정보를 제공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와이즈넷은 전세계적인 재난·위기 속에서 넘쳐나는 무분별한 정보 중 정부가 제공하는 신뢰도 있는 공개 정보를 국민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기관들이 코로나19 정보 제공을 위해 AI 챗봇을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기관 홈페이지와 챗봇의 무상 연동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공공서비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20일 오픈 이후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원투씨엠은 한·중 연계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 플랫폼과 중국 최대 모바일 플랫폼인 '위챗(WeChat)' 플랫폼을 결합해 위챗 공중계정 서비스, 위챗 페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한 중국인의 동선 및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원투씨엠은 1차 분석에서 최근 방한 중국인은 방문지가 서울 5대 권역권(명동, 이대, 아현, 흥대, 인사동, 가로수길)에 64.7%로 집중돼 있으며 다음으로는 제주도 관광소 및 부산 등을 방문했다고 집계했다. 또 2~3명의 소규모 자유여행객이 많고, 그 다음으로 가족 단위의 5~6명이 많다고 설명했다. 원

투씨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한 중국인들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카카오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챗봇을 통해서도 코로나19 감염 경로, 검사 방법, 치료 등 정보를 문답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또 최근 '카카오 채널'을 통해 '질병정보알림' 메시지를 총 1752만명의 카카오톡 친구에게 푸시 알림으로 발송했으며, 카카오톡 #합상단 배너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원투씨엠, 한·중 빅데이터 활용 방한 중국인 동선·행태 등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AI 기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재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질환 치료제 중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AI로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의료 AI 기업들이 AI로 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해 적합한 항암제를 찾아주거나, 항우울제의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예측해 약물을 찾아주는 솔루션 개발에 나서고 있는 흐름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만큼 AI가 약물 효과 예측 등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돼, 정부도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새로 나온 책

### 항생제 감염 치료법의 최전선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싸움이 있다. 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다. 영국의 세균학자이자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은 1945년 노벨상을 받으며 "너무 많이 사용하면 페니실린 내성균이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예언대로 지금 인류는 보이지 않는 적 '슈퍼버그'와 싸우고 있다.

슈퍼버그는 항생제가 통하지 않는 균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 슈퍼버그 12종을 발표하면서 매년 70만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50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100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른 경제 피해액은 100조 달러에 육박한다.

2018년 유럽질병통제센터는 슈퍼버그 감염으로 해마다 3만3000명의 유럽인이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 슈퍼버그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 폐렴 등에



#### 슈퍼버그

맷 매카시 지음/김미정 옮김/흐름출판

걸린 사람은 9000여명이며 이 중 40%(3600여명)가 사망했다.

책은 항생제 임상시험의 최전선에서 있는 맷 매카시 박사가 항생제 내성 감염 치료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록이다. 희소 감염병을 앓고 있는 10대 소녀와 9·11 테러 당시 현장을 지켰던 뉴욕의 소방관,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여성, 의료진의 처방 실수로 인해 마약 중독자가 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임상시험 참여자들의 생과사를 오가는 치열한 순간이 담겼다. 392쪽. 1만8000원.

#### 진리의 발견

마리아 포포바 지음/지음 옮김/다란



책은 역사적 인물들의 삶에 인간적 진실을 엮어냈다. 행성 운동 법칙을 발견한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 이야기에서 시작해 과학에서 여성의 길을 닦은 천문학자 마리아 미첼, 뉴욕타임스 최초의 여성 편집자로 여성주의 운동에 불을 지핀 마거릿 풀러, 시인 에밀리 디킨슨을 거쳐 환경 운동을 촉발한 해양생물학자인 레이철 카슨에서 끝을 맺는다. 앞서 나간 자들의 불멸의 정신과 조우하는 새로운 전기문학. 840쪽. 4만4000원.

#### 인삼의 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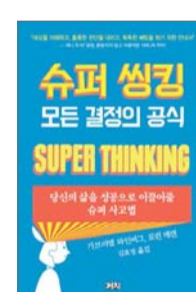
설혜심 지음/휴머니스트



한국의 몸보신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인삼이다. 고려인삼이 유럽에 첫발을 내딛고 서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1617년이니, 말하자면 '최초의 한류 상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서양 역사에서는 인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서양사학자 설혜심 교수는 의문을 갖고 인삼에 관한 기록을 찾기 시작,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인삼의 역사를 복원해냈다. 서구 문명이 인삼에 어떤 식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덧칠했는지 파헤친다. 464쪽. 2만5000원

#### 슈퍼 싱킹

가브리엘 와이버그, 로런 매켄 지음/김효정 옮김/까치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식은 언제 팔아야 할까? 과소비로 늘 카드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사생활 보호 검색 엔진인 덕덕고의 CEO와 통계학자인 저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한정된 시간 안에 최선의 결정을 하는 법. 464쪽. 1만9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위 호텔 제주, 흑돼지·고사리 특선메뉴 선봬

### 제주 흑돼지·고사리 프로모션

'위 호텔 제주(WE Hotel Jeju)'가 한라산의 맑은 물과 햇살을 받으며 자란 제주 흑돼지와 제철 제주 고사리를 이용한 '제주 흑돼지와 고사리 프로모션'을 올데이 다이닝 '다채' 레스토랑에서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제주 흑돼지와 고사리 프로모션'은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맛 제주 흑돼지와 따스한 햇볕과 바람이 좋은 청정 한라산에서 나는 통통하고 맛이 일품인 제주 고사리를 이용해 WE 호텔의 4명의 셰프가 각자의 이름을 걸고 메뉴를 선보인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데 특히 제주 고사리는 영양 많고



WE 호텔 제주, 제주 흑돼지와 고사리 요리

맛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하는 '겉재'라 불렸다. 고사리 예로부터 식용은 물론이고 약용으로도 사용했는데 구충제 대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살균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완화하고 발열 현상을 개선해 주고 암세포가 침착하는 것을 막아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 /조효정 기자

## 아티스트와 소통... 'K-핸드메이드페어' 11월19일 개막

### 코엑스에서 나흘간 진행

지난해 5만30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관람객을 동원한 'K-핸드메이드페어'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핸드메이드 아티스트와 팬들과 만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대표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 연 2회 개최돼 대한민국 최대 규모 핸드메이드 전문 전시회로 자리잡은 'K-핸드메이드페어2020'에서는 공예부터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인테리어, 패션, 뷰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K-핸드메이드페어 2019' 부대행사장

의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다. 올해 행사는 특히 아티스트와 관람

객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핸드메이드 팬덤 문화 확산을 꾀한다. 연예인과 캐릭터 등에 국한되던 팬덤 문화를 이번 행사에 출품하는 작가들에게 적용해 핸드메이드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게 목적이다.

최근 SNS를 활용해 형성되고 있는 아티스트와의 만남의 장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관람객들이 평소 관심 있던 아티스트와 그 작품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NOT BEEF, BUT VEEF!

Ria **미라클버거**  
MIRACLE BURGER



고기 없이 고기 맛이 나는 기적!



*New*



**리아미라클**

세트 ₩7,400 버거 ₩5,600

동물성 원재료 성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조리 시 교차 혼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 광주·전남 음압병상 14개뿐... 확산 대비 병상 확보 시급

(코로나19)

126번 환자 아내 양성으로 확진  
확진자 증가세에 병상 부족 우려  
일반병실에 음압기 설치 등 검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6번째 확진 환자인 40대 여성이 4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국가지정 격리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출입이 통제된 전남대병원 격리병실 입구. /뉴스

광주에서도 신천지 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치료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두 번째 사망자가 음압 병상 포화로 먼 거리를 이동하다 숨진 것으로 드러나, 환자 급증을 대비한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26번 환자 A씨의 아내(31·광주 서구)가 양성으로 확진됐다. 현재 치료 중인 광주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7명이다. 보건 당국은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30대 남성인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거나 교리를 공부하며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7명 중 4명의 접촉자 수가 176명으로 추산되고, 교리 공부에도 다 른 신도 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 지면서 '다수 전파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음압 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 격리 병상(1인실 기준)'은 광주에 12개뿐 이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 각 7개·5개

가 있다. 민간 병상을 포함하면 16개다. 22일 오전 8시 기준 광주 음압 병상 가동률은 66.7%(확진·의심 환자 수용)로 집계됐다.

22개 시·군인 전남의 국가 지정 음압 병상도 국립목포병원에 2개(1인실)만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 기준이 강화되기 전 건립돼 의료진·환자들의 출입문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다.

4인실도 2개 있지만, 격리 환자 치료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목포병원에는 감염내과 전문의도 없다.

만약 코로나19환자가 급증하거나 유증상자가 동시에 몰리면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도 크다.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경북에서는 병상 부족에 따른 사망자도 나왔다.

지난 21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환자는 대구·경북 음압 병상이 남아 있지 않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직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감염내과·예방의학 전문의들은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낮은 대신 전파 속도가 빠르다. 거점마다 충분한 음압 병상 확보, 선별 진료소 확대, 전문 의

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시설·인력을 두루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단기간에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 병상 확보에 나섰다. 대학병원 1인실 이용 또는 일반 병동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또 공공의료기관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곳을 비운 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음압 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공기 중 바이러스를 병실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두는 특수 격리 병실을 뜻한다.

전국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은 161실 198병상(민간 포함 시 755병실 1027병상)이다. 전남 오전 기준 57.8%가 확진·의심 환자를 수용 중이다. 대구·경북·충북·부산 병상은 꼭 차 환자를 받을 수 없다.

/광주=김태수 기자·전남=양수영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동네방네

### “위기극복 함께” 전남 담양소방서, 긴급 헌혈 나서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까지 동참

전남 담양소방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의 해소를 위해 사랑의 헌혈에 적극 동참, 위기 극복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한 달 간 전국에서 총 206개 단체가 헌혈 계획을 취소했으며, 헌혈 보유량 적정치는 5일분을 크게 밑도는 3일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담양소방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 운동에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의용소방대원까지 동참해 사랑의 헌혈을 실천했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데,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 곡성군, 주민소득 지원대상자 선정... 6.8억 투입

1인당 5000만원, 이자율 1%

곡성군은 2020년도 상반기 주민소득 지원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소득 향상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까지 2년 거치 일시 상환 혹은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

된다. 시설자금은 1억 한도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자율은 모두 1%다.

곡성군의 경우 상하반기 각각 8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 결과를 분야별로는 축산 6농가, 농지 구입 2농가, 원예 1농가 과수 1농가로 축산 분야가 가장 많았다. 총 지원 결정 금액은 68,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전남=김태수 기자

## “순천완주 사매2터널 복구에 약 40일 필요”

한국도로공사 비용 약 37억 소요  
북남원·서남원IC 등 우회 당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터널 사고로 차단됐던 제27호선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완주방향) 복구에 4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 발생한 터널화재 사고로 입구에서 사고지점(70m)까지 폭열로 터널 내 콘크리트 상부가 크게 손상되고 철근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터널 조명(311개), CCTV(1개), 광케이블 등 부대시설도 손상을 입었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부터 이틀간 전문가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터널 내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내었다.

복구작업은 파손된 콘크리트의 강판



지난 17일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에서 빙판길 사고로 추정되는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

(파형) 및 콘크리트 보강공사와 전기·포장·통신 등 부대공사 순서로 진행되며, 비용은 약 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구에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완주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북남원IC, 서남원IC 또는 남원IC로 진출하여 국도 17호선 등을 통해 오수IC로 우회하면 된

다. 남원분기점 이남(순천, 여수, 광양 등)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제25호선 호남고속도로, 제12호선 광주대구고속도로 등으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빠른 복구를 통해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태수 기자

### “LPG,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쓰세요”

전남도 LPG 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 완료마을 LPG 절반가격 이용

전남도가 올해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소규모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 가스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계량기를 설치해 LPG를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7개 마을이 늘어나 13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2개였던 도 자체사업을 올해는 10개까지 대폭 확대해 총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지원 마을은 3개

다. 보급대상 마을은 매년 8~9월 시군을 통해 신청 받아 사업 적합도, 탱크부지 확보,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사업이 완료된 마을은 LPG를 도매업체로부터 대량(벌크단위)으로 공급받아 50% 이상 가격이 저렴한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농어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형 SOC사업 확대 차원에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 상주시 토양개량제 7966t 살포

상주시는 올해 토양개량제 7966t을 공동살포단을 통해 살포하기로 했다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물량 공급방법 등을 결정하고, 전체 공급물량 1만1207t(규산 6448 석회 3128 패화석 1631) 대비 71% 정도인 7966t(면적 883ha)을 지역농협을 통해 적기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대상은 함창읍, 사벌곡면, 중동면,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내서면이다. 이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인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토양개량제(규산·석회패화석)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오늘의 날씨

2월 24일(월) 음력: 2월 1일

수도권 날씨 2 ~ 1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2 | 해질 / 18:20

백령도 6/9, 연천 -2/12, 동두천 -1/13, 가평 -3/11, 파주 -3/10, 서울 2/13, 인천 3/11, 수원 2/13, 양평 -3/13, 용인 2/13, 평택 -1/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마스크수거함 설치, 임대료 인하... 서울시민이 나선다

**코로나19 극복, 시민 제안 불붙**  
**“일회용마스크 반드시 폐기소각”**  
**개인스케줄 기록 캠페인 등 의견**

서울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책을 제안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시민들은 일회용 마스크 수거함 설치, 중국 우한시 지원, DDP 임대료 인하, 감염병 예방 캠페인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중랑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는 “만일 누군가 보균상태로 마스크를 사용하면 위험하므로 신종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는 반드시 폐기 소각해야 한다”면서 “정부청사나 관공서, 병원, 길거리 등에 마스크 수거함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사용한 마스크를 함부로 버리면 재전염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일회용 마스크 및 폐기 마스크, 그리고 확진환자 마스크를 모두 수거해 소각하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회용 마스크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이며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마스크 수거함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마스크 외 다른 폐기물의 혼합 투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수거함 설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한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하자는 시민 제안도 나왔다. 김모 씨는 “우리나라 국민 38명이 사망한 2015년 메르스 때 당시 한국의 메르스 환자를 치료해 준 중국은 1억여원이나 나왔던 치료비를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웃간 빠른 공조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지금의 상태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는 미개한 발상보다는 의료진, 검역팀, 방역팀, 구호물자 등을 보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우한에 마스크 보내기’ 시민운동을 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베이징시는 메르스 사태 종결 직후인 2015년 7월 베이징시장의 특별지시 하에 베이징시 관광부서장과 여행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서울시를 먼저 방문했다. 같은 해 8월 서울시장 관광대표단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시 등의 협조로 중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관광 홍보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중국 도시들의 여러 협조에 힘입어 서울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베이징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전염병으로 얼어붙었던 서울시 관광시장이 회복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은 만큼 이웃도시가 청

하는 도움의 손길을 무시하는 것은 장기적인 도시외교 방향과 그간 쌓아온 우호관계의 도리에 대치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베이징시와 자매도시결연 관계이며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텐진시, 저장성, 상하이시, 쓰촨성, 충칭시 등 총 8개 중국 성급(省級) 도시와 우호 도시관계를 맺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내 방역대응과 예방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돼야 함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현 상황에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발생지인 중국의 방역·예방에 힘을 보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역시 방역물자 국내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장 시급한 자매우호도시들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시민들은 ▲DDP 상인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 ▲재난문자를 통한 확진자 동선 알림 ▲역학조사 시 환자 동선 파악을 위한 개인 스케줄 기록 캠페인 등을 시에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에 관리비 감면

서울시, 지하도상가 8월까지 혜택 미납 점포에 임대료 납부 유예 적용 관리비 부과체계 개선 등 추가 대책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임대료 납입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1761개다.

시는 또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인 건비의 임차인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원의 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 부담을 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5일부터 주 1회 간격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지하도상가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관리비 감면으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예산 800% 확대

서울시 571억, 총 3950대 지원 조기폐차시 최대 3000만원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800% 확대한 571억원으로 정하고 총 3950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2006년 이전 등록)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만큼 예산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

착기의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69억원을 투입해 446대(엔진교체 367대, 저감장치 부착 79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을 완료했다.

/김현정 기자

## 우이신설선 배차간격 줄여 운행 늘린다

서울시, 노선 혼잡도 개선

〈우이신설선 혼잡도 변화 추이〉

구분	'18. 10월	'19. 11월	'20. 1월 (시범운영)
오전 7시~9시	157%	161%	141%

\*정릉역~성신여대입구역(우이신설선 구간 중 최혼잡구간) 기준 /서울시

서울시는 출근시간대 우이신설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운행 횟수를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 배차간격을 3분에서 2분 53초로 7초 줄여 운행 횟수를 40회에서 42회로 2차례 늘리는 방식이다.

배차 간격 단축으로 전체 노선(신설동~북한산우이역)을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8분에서 46분 8초로 약 2분 줄어든다. 출근시간대 혼잡도는 161%에서 141%로 약 2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우이신설선 혼잡도 개선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돼 온 ‘삼양동 도시재

생 활성화와 태스크포스’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그동안 시는 운행속도 증가, 역정차시간 단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운행 횟수 증편을 추진해 혼잡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이신설선 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주)은 지난달 시범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증편 운행을 협의 중이다. 국토부 승인이 나면 4월 13일부터 운행 횟수가 늘어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한도 ↑

대출한도 2500만원서 7000만원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19~39세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에 필요한 용자를 받아야 할 때 서울시가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엔 대상자의 대출 한도를 2500만원에서 7000만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늘렸다. 본인 부담 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 2% 지원을 받으면 연 1%대로 고정된다.

신청 기준인 본인 연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 중이거나 근로 경력이 있는 청년은 기존 5년 근로 기준이 삭제돼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의 신청 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시는 대출 신청 이전에 지점 상담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심사 부결에 따른 계약 파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신청부터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심사까지 모두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산업]
쌍용자동차
노사·주주 힘 하나로
기사희생 날개 '활짝'
08



Life

[바이오]
임상실험
중에 밀려 점유율 하락
빛바랜 '임상강국'
L2



해안 절경 따라... 봄꽃 능선 따라...
'신비의 섬' 청정 울릉도 한바퀴

울릉도 관음도 전경.

/한반도투어

메트로 트래블

한반도투어, 울릉도 2박3일 상품 출시
섬 일주 도로 55년만 완공... 관광객 유치
거북바위·저동항 등 곳곳 돌아볼 수 있어



울릉도 저동항.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풍광
을 간직한 대한민국 10대 관광특구로 특산·자
생종을 포함 동식물 800여 종이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여행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
는 곳이다.

최근 관광객들이 염원했던 울릉도 섬 일주
도로가 55년 만에 완공됐다. 울릉도 전문 한반
도투어는 섬일주도로 완공을 발판으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반도투어는 봄을 맞아 울릉도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울릉도 2박3일' 상품을 출시했
다고 23일 밝혔다.

첫날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출발해 목호
(강릉)항에 도착, 조식(한식백반)후 여객선터
미널로 이동한다. 씨스타1호를 타고 울릉도에
입성해 울릉도 도동항을 출발 거북바위, 투구
봉, 현포항, 천부 등을 거친 뒤 나리분지로 돌
아오는 약 4시간 소요되는 육로 A코스를 관광
한다.

둘째 날에는 봉래폭포를 출발해 내수전 전
망대를 거쳐 저동 촛대바위로 돌아오는 2시간
30분 소요되는 B코스를 관광한다. 울릉도 전
경을 감상하는 유람선 투어와 독도 투어도 신
청할 수 있다. 독도투어는 당일 해상날씨에 따
라 결정된다. 울릉에서 독도까지 1시간 40여분
소요되며, 사전예약 및 입금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울릉도는 가는 곳마다 신화적 풍경을 간직
하고 있다. 통구미 거북바위, 곰바위나 학포
만물상은 제주도와 금강산을 동시에 온 듯한
착각이 일게끔 한다.

3일차에는 조식 후 약수공원, 독도박물관,
향토사료관, 케이블카(읍선), 성인봉등반등을
진행한다.

성인봉 북쪽의 나리분지는 울릉도에서 유
일한 평지다. 옛날 첫 이주민이 섬말나리 뿌리
를 캐먹고 연명했다고 해서 나리골이란 이름
을 얻었다는 설이 있다.

울릉도 전통 가옥인 너와집과 투막집 앞서
면 시간여행을 떠났던 듯 아련해진다. 울릉도의
중심지 도동항 오른쪽 산기슭의 수령 2000년 된
향나무는 울릉도의 상징이자 신목이다.

저동항은 울릉도 어업 전진기지인데 퍼덕퍼
덕 뛰는 해산물을 맛보기 더없이 좋은 어항이
다. 봉래폭포 가는 길의 삼나무 숲은 여행의 피
로를 풀어주는 최상의 삼림욕장이다. 행남해
안로는 울릉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로
꼽힌다.

한반도투어가 3월말~4월초 부터 본격적으
로 판매하는 '울릉도·독도2박3일 상품'은 울릉
도의 주요 관광지인 저동항, 태하 해안산책로
길 등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울
릉도 상품은 매일 출발 가능하며 왕복 셔틀버
스 비용과 숙식(2박5식) 및 관광지 입장료, 선
박비용 까지 모두 포함된 상품이다. 1박2일 일
정은 4시 제공되며 대아리조트 예약시 입·퇴실
시간 및 수송 등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1인 금액은 2박3일기준 26만원부터다. 토,
일요일도 예약상담 가능하다.

/이민희 기자 ykl@metroseoul.co.kr

여행 단신

온라인투어

올 4~5월 황금연휴 얼리버드 특가

2020년은 2019년
보다 휴일이 적다. 그
럼에도 황금 같이 좋
은 시기에 길게 갈 수
있는 '황금연휴'가 4
월 말에 우리를 기다
리고 있다. '석가탄신
일'인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하루만 연차를 내
면 총 6일을, 더불어 5월 4일 그 주 4일의 연차를 낸
다면 최장 11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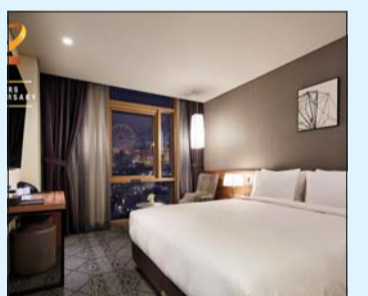
오는 3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4-
5월 황금연휴 기간에 출발하는 상품을 특가로 만나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지역별, 상품 유형별로
다양한 상품이 구성되어 있어 여행자의 취향에 따
라 여행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최대 5% 할인된 특가 상품이 공
개되므로 월요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팁이다.

특가뿐 아니라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상품별, 지역별
로 특별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사이판 패키지
상품 예약시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이 제공되며, 호
주&뉴질랜드 패키지 상품 예약 시 객실 당 와인 1
병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유럽 패키지 예약
시 다양한 선택 관광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미
국, 하와이, 캐나다 패키지 상품 예약 시 ESTA 비
자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모두투어

스타즈호텔 울산점 특가 프로모션

(주)모두투어네
트워크(사장 유인
태)의 호텔운영법
인 (주)모두스테이
의 스타즈호텔 울
산점이 개관 2주년
을 맞아 특가 프로
모션을 진행한다.



숙박 예약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와 스타즈호텔
의 전국 6개 지점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
은 2월 20일을 시작으로 3월부터는 스타즈호텔 공
식 홈페이지, 해외 온라인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된다. 3월 말까지 주중과 주말 동일한 요금으로 선
보이는 울산점 단독특가와 서울 독산점의 주중 특
가를 비롯해 스타즈 호텔의 다른 지점인 서울 명동
1, 2호점과 동탄점 그리고 제주로베점은 레이트 체
크아웃 또는 조식무료 제공 상품 또한 선보인다.

비엠펙항공

29일까지 모든 항공권 5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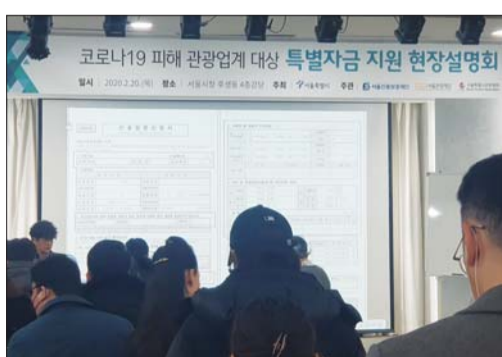
비엠펙항공이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모든 노
선의 항공권을 5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항공권 예매 과정에서 프로모션
코드 'BOOKNOW50'을 입력하면 할인이 적용되
는 방식이며 한국~베트남 노선 외 베트남, 태국 국
내선 및 베트남~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일본 국제선 노선 항공
권 가격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세금 및 수
수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희 기자

관광協,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에 특별용자 지원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시관광협
5000억원 규모, 업체당 5억 한도 지원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관광협
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 위극
복에 일조하고자 특별용자를 지원한다.

우선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관광
협회는 5000억원(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0억원, 시중 은행협력자금 4000억원)의 지
원규모로 서울시 소재 관광분야 중소기업 및 소
상공인 대상으로 서울시 기금 ▲업체당 5억원
한도(고정금리 연 1.5%) 및 시중은행자금 ▲업
체당 7000만원 이내(변동금리 연 1.52~1.82%)
용자조건과 대출금리가 나간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이며 13개 시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에서 관광업계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민희 기자

중 은행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2월 5일부터 소
진시까지 접수가능하며, 1년 거치 4년(3년)분
할상환, 2년 만기일시 상환 조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5000억원 규모의 '2020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

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용자'를 내놓았다. 관광
진흥법상 관광사업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 1~8등급인자
가 대상이다. 단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
을 초과하는 사업체도 신청가능하다. 신청한
도는 2억원 이내며 기준금리에서 1.25% 차감
한다. 2월 19일부터 올 12월 11일 까지 신청가
능하며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5000억원 규모의 '2020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
금 용자지원지침'자금 계획도 세웠다. 지원대
상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최근 1
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로 기준금
리 0.75% 우대조건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3
월 30일까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용자금 신청서를 받는다. /이민희 기자 lnh@